

자산 270조 우리銀 주인찾기 닦올라

정부지분 30% 일괄매각·10% 희망수량 매각 '투트랙'
일괄매수자에 경영권...소수지분 매수자, 풀옵션 부여

우리금융 민영화의 최종 관문인 자산 270조원 규모의 우리은행 매각 작업이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매각 방안의 핵심은 정부 보유 지분 56.97% 중 30%는 일반 경쟁 입찰(1그룹), 나머지 26.97%는 10% 미만 희망수량 입찰(2그룹)로 분산 매각하는 더블 트랙 방식이다. 여기에 우리은행 매각 시 지분 10% 이하 매수자에게 3년 내 풀옵션 기회가 부여된다. 풀옵션은 미리 주식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주가가 올라도 기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 소

수 지분 매수자에 대한 유인책이다. ▶관련기사 3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제96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더블 트랙 방식, 풀옵션 등 새로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간다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우리은행 경영권은 지분 30%를 가져가는 쪽이 사실상 우리은행의 주인이 된다. 현재 우리은행 시가총액은 8조5000억원 정도로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3조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 승인 및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매각안의 특징은 2그룹 지분 매수자는 입찰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당근책을 제시했다. 경영권 아닌 지분 매각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내 시장 매입 대신 이번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

는 1주당 0.5주의 풀옵션을 부여했다. 여기에는 예비입찰이나 실사가격 조정 등의 절차가 생략되고 '매각공고 → 입찰 → 낙찰 및 종결'순으로 신속한 매각이 진행된다.
한편 시장의 관심은 30%의 지분을 한꺼번에 인수하는 교보생명 등 인수 후보군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공개적으로 매수 의사를 밝힌 곳은 교보생명뿐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6조원으로 알려진 KB금융은 잠재적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PEF)나 외국계 금융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인수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가 우리은행 경영권을 가져갈 공산이 커졌다. 안철우 기자 acw@

산업계 심상찮은 夏鬪

5월기준 입단협 타결률 10.7% 그쳐... 1997년 이후 최저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현안 산적...7·8월 노사 충돌 예고

통상임금, 정년연장, 휴일근로 수당 중복 활용 등 노사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하투(夏鬪)를 앞둔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여기에 전교조 범의노조 논란과 금융권 구조조정에 맞물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하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입단협 타결률은 10.7%로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하투를 앞둔 노사 간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23-28일을 '총궐기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28일 전국 대규모 집회를 연 뒤 다음달 총파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속노조 또한 7월 중순에 총파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투를 앞두고 투쟁 수위를 높일겠다는 전망이다. 지난 3일부터 임금협상에 들어간 현대차 노조 또한 정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가 이같이 하투를 앞두고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까닭은 올해 유독 근로조건과 연계된 노사 현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심조사를 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고용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어떻게든 이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초과 근로가 많은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휴일근로 수당 중복 활용 문제도 노사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



다. 현재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기업들은 반드시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 이와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역시 노사 간의 뜨거운 이슈다. 현재 17% 수준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늘어날 경우 노조 측의 반발은 명약관화하다. 현대차 노조는 이와 관련, 임금협상 요구안에 '조건 없는 정년 연장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전교조 범의노조 지정은 하투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성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장은 최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철저히 연대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총력투쟁 집회에서도 전교조 문제가 주된 구호로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세티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대응해 2단계 파업을 진행하고 외환은행 노조도 외환카드 분사 저지에 나서면서 금융권 또한 어느 때보다 격렬한 하투를 예고하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



이럴 수가... 韓, 알제리에 2:4 참패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프리카의 북방 알제리에 2-4로 참패,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4 브라질월드컵 B조 조별예선 2차전 한국과 알제리의 경기가 열린 23일 새벽(한국시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을 염원하는 붉은악마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기대감에 부른 함성은 잠시 뿐이었다. 경기 초반부터 알제리에 연속 골을 허용하자 붉은악마의 함성은 잠잠해졌다. 붉은악마 응원단이 허탈한 표정으로 한국팀의 패배를 지켜보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사진=노진환 기자 mylfex@

교보생명 을 하반기 상장 추진

우리銀 인수전 실탄확보 위해
IPO시기 앞당길 가능성 높아

우리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교보생명이 하반기 IPO(기업공개)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과 2015년까지 상장하기로 한 만큼 우리은행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상장을 앞

당길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IPO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지분 30%에 대한 예상 인수가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단독 인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예상 매각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의 자회사 주식 및 채권 합계액은 일반계정 자산총액의 3%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교보생명의 일반계정은 약 58조원으로 3% 미만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또 교보생명이 안정적 인수를 위해 10% 지분만 인수할 수도 있다. 교보생명이 지분 10%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최대 8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9550억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이지만 일부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이 하반기 중으로 IPO를 진행해 인수자금을 총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지분 24%를 보유한 FI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협의를 통해 2015년까지 상장하기로 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은행 인수에 대한 의지가 높고 내년까지 상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하반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e0118@



▶15면
미셀 위 US女오픈 우승

10대그룹 상장사 평균 연봉... SK '한지붕 극과 극' 텔레콤 1억500만원...솔믹스 3200만원

현대하이스코 1인당 순이익 42억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중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SK텔레콤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삼성전자가 직원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을 지급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26면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금융사, 지주사 제외) 상장사 74곳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2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SK텔레콤이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봉이 가장 낮

은 곳은 SKC솔믹스로 1인당 평균 3200만원을 지급했다.
조사대상 10대 그룹 상장사 74곳 중 지난해 평균 연봉 상위 10위권에는 SK텔레콤(1억5000만원), 삼성전자(1억2000만원), 현대자동차(9400만원), 기아자동차(9400만원), 삼성물산(8700만원), 삼성정밀화학(8400만원), 제일기획(8400만원), SK가스(8200만원), 삼성엔지니어링(8100만원), 현대제철(8100만원)이 자리했다. 하위권 10개사에는 롯데푸드(4000만원), 한국공항(4000만원), 유비케어(3900만원), 한진칼(3900만원), 한화타임월드(3900만원), GS리테일(3600만원), 삼양식품(3600만원),

롯데쇼핑(3400만원), 롯데하이마트(3300만원), SKC솔믹스(3200만원)가 포함됐다. 하위 10개사의 평균 연봉은 3680만원이었으며 상위 10개사의 평균 연봉과 비교해 526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10대 그룹 상장기업 중 지주사를 제외한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의 최고는 현대하이스코였다. 현대하이스코는 지난해 종업원 1인당 4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2012년 2316억원을 기록한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조5295억원으로 오르며 1위를 차지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숫자로 본 NEWS

코스피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 역대 최저
40.6%

올 1~5월 커피수입량
작년보다 13.6% ↑
5만2660톤

올해 1~5월 커피·차 품목별 수입량

품목	수입량	작년 대비 (%)
커피	5만2660t	13.6% 증가
녹차	18t	14.4% 증가
홍차	412t	41.54% 증가

개미를 주식시장 떠난다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40.6%로, 투자자별 매매동향 추이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2011년 5월 2228.9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2011년 4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58.9%를 나타낸 이후 계속 줄어들며 40% 초반까지 떨어 내려왔다. 하정청 기자 jcha@

커피·차 수입 크게 늘었다

올해 우리나라 커피와 차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FTA)에 따르면 올해 1~5월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은 5만 2660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6% 늘었다. 녹차는 작년 동기보다 14.4% 증가한 18톤이, 홍차는 41.54% 뛰어들어 412톤이 각각 수입됐다. 커피와 차의 소비문화는 상위 브랜드 커피전문점들의 점포 숫자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점포 수 기준 상위 5대 브랜드의 점포 수는 지난해 3924개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Biz 월요섹션 19~23면

커버스토리
농업의 희망 '6차산업'

이원준 대표 ▶ 이기수 대표 ▶▶

노대래 '우회전'... 새 경제팀 코드맞추기?

〈공정거래위원장〉

“건설사들이 담합하더라도
미래 영업 제약해선 안돼”
‘親기업’으로 선회 분위기
공정위 내부서도 ‘당혹’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전기업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최근 건설사의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년여 전 취임 당시 “담합이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던 것과 크게 상반된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20일 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해 미래 영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건설업계 등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쟁법은 기업 간의 담합행위를 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중대한 경제범죄로 취급한다. 현행법이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높은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법률인 국가계약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기재부 사이에 사전 논의가 조금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토요청조차 없었던 내용”이



지난 20일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대형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 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들에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라며 “일방적 발표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 한 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바람에 노 위원장의 발언 이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정책보다 산업정책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세종 관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이자 친시장·친기업 성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최경환 후보자가 새 경제부총리로 올 예정이지 않

느냐”며 “노 위원장도 최근 개각 물망에 올랐던 만큼 여러가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당황한 듯한 모습이 감지된다. ‘경제감찰’로 불리는 공정위 수장의 발언으로 싯풍 받아들이기엔 어색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서만 7차례의 공공건설 담합사건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했던 대형 건설사는 모두 이들 사건에 상습적으로 연루됐던 일종의 ‘피고’ 신분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취임 두달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 국내외 본격 ‘경영행보’

내달부터 부문별 업무보고 청취
실적 미미 해외점포 방문 계획
국내 시장 백화점·쇼핑몰 강화
협력사 감을관계 아닌 ‘섬김경영’



이원준(사진) 롯데백화점 대표가 출근 두 달 만에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돌입한다. 지난 4월 23일 롯데백화점 대표로 내정된 그는 그동안 땅에 떨어진 백화점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윤리경영에 매진하고 내부 직원들의 사기 충진을 위해 주력해 왔다.

23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식 취임 후 처음 개최한 임원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각 부문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임원들은 7월 첫 업무보고를 위해 국내외 점포의 세세한 현황까지 모두 챙기고 있다.

또한 좀처럼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해외 점포의 실적 개선을 위해 해외 전 점포를 둘러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백화점 실적 개선 방안, 신성장동력 확보 등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2008년 8월 베이징에 중국 1호점을 열고 최근 정두점까지 5개의 점포를 열었다. 중국 진출 6년의 성과는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쌓이는 등 회사 전체 실적을 깎아 먹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식 취임 전후로 중국 점포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향후 5년 내 해외 출점을 20개까지 늘리겠다는 글로벌 구상을 발표했다.

지속적 성장을 이어오던 국내 성적표도 서서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세월호 참사와 소비심리 악화로 백화점 부문이 결정타를 맞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백화점과 쇼핑몰을 중심으로 아웃렛을 더욱 강화해 국내 사업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직원들은 이 대표에게 가는 기대가 크다. 백화점에서 상품본부장과 영업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내부 출신 대표로 업계 사정에 정통하다는 것과 롯데백화점의 가파른 성장을 이뤄낸 실력파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공식 취임 전 이 대표는 신현 전 대표의 롯데홈

쇼핑 납품 비리도 상처를 입은 직원들 추스리기에 올인했다. 매 주말마다 전국의 점포를 돌며 직원들의 손을 잡거나 안아주며 “다시 한 번 힘내자”고 독려했다.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윤리경영 관련 제도 및 교육 등을 기획하는 ‘윤리기획팀’을 신설하고 지난 12일에는 윤리·정도경영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정도경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소한 개인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윤리경영을 전면에 내세운 그는 밖으로는 롯데백화점의 ‘악한 고리’를 강화하는 데에 노력할 방침이다.

임원 회의에서 이 대표는 “협력업체를 잘 섬기라”고 강조했다. 감을 관계에서 벗어나 ‘섬김의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주변의 조언과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등 외부 소통이 취약하다는 롯데에 대한 세간의 지적을 일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철규 기자 yoonck@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수돗물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넘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K-water의 새로운 약속
지금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물, K-water 프로젝트

Smart Water Grid 인프라 구축

Smart Water Grid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집적된 차세대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입니다. K-water는 SWG를 구축하여 물의 생산과 수송의 전 과정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인체에 이로운 건강한 물 생산

의료계와 협업을 통해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된 물을 생산하여 좋은 물의 참맛을 찾아내고 인체에 건강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Total Care Service 채택

수돗물 품질 확인제, 옥내 배관 내시경 탐사, 배관 세척 및 교체 등을 통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쌓아하겠습니다.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日 여성 리더로 떠오른 노다 (자민당 총무회장) “女 사회진출 아직 갈 길 멀다”

“여성 일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중요”
아베 “2020년까지 여성 고위직 30%로”
정부 40만명 수용 아이 돌봄 센터 짓고
워킹맘 육아휴직 3년으로 늘리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남녀 불평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무회장을 맡은 노다 세이코(사진)가 일본 여성 리더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노다 세이코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 눈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다 총무회장은 이어 “여성이 일한다는 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자민당 총무회장이 여성이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맡은 총무회장은 당내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한 자리다. 총재 밑에 간사장, 정조회장과 함께 자민당을 이끌어 가는 당 3역 중 하나다. 특히 총무회장은 자민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총무회의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로 주로 당내 불만을 느끼는 의원을 설득하는 조정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노다 총무회장은 아베 신조 총리 견제과의 중심점 격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성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여성 사회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여성 사회진출이 곧 나라의 새 성장동력이라는 판단에서다. 오는 2060년이 되면 일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4400만명으로 줄어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성 인력이 일본 경제 성장에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일본이 성별 고용 격차를 줄인다면 국내총생

산(GDP)이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목표는 오는 2020년까지 고위직 여성 비중을 30%로 끌어올려 인구 고령화 및 감소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육아시설 부족, 정규직을 장려하지 않는 각종 세금 정책 등 기존의 일본 사회 문제와 규제가 여성 사회 진출 장려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3년 정계에 입문한 노다 총무회장은 세 살배기 아이의 엄마다. 그는 여성의 사회 진출 부분에서 일본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이 당내 총무회장이라고 하면 나이가 지긋한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40만명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종일반 돌봄 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워킹맘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지분 30%만 인수해도 매각가 3조...입찰 경쟁 '불' 붙을까

공적자금위원회, 우리은행 매각방안 확정

우리금융 민영화 마지막 관문인 우리은행 매각 방안이 발표됐다. 30% 통매각·10% 분산매각의 두트랙 방식과 더불어 소수지분 입찰 흥행을 위해 1주당 0.5주의 콜옵션(추가로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했다. 이전에는 없던 매각 방식이다. 진일보된 매각 계획이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빅딜이다 보니 이번에도 확실한 주인을 찾기 못할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경우의 수'를 따지는 인수 참여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30% 통매각·교보생명 외 입찰 참여 관련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총 지분은 56.97%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30%는 두 곳 이상의 경쟁에 참여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팔고, 나머지 26.97%는 투자자별로 10% 미만 한도 내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살 수 있는 희망수량입찰 방식으로 넘길 계획이다.

정부가 '30% 통매각' 그룹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안정적 경영권을 획득하게 해 확실한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10% 수준의 불안정한 경영권에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내기는 힘들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지분 30%만 인수한다고 해도 매각가는 3조원에 달한다. 30% 이상 매각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군은 교보생명과 KB금융이 꼽힌다. 금산분리 때문에 삼성이나 한화와 같은 대기업은 눈길조차 줄 수 없고 타 금융그룹은 자금동원력에서 밀린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도 인수전 불참 의사를 공식화했다.

우선 교보생명은 인수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돈'이 부족하다. 자체 자금능력이 1조3000억원밖에 안된다. 재무적 투자자의 힘을 빌리지 않는 이상 독자 인수는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 추후 상장 등으로 지분 가치가

교보생명 자금능력 1조3000억
재무적 투자자 먹튀 뎀 경영권 위협
타 업체 입찰 참여여부가 관건
10% 분산매각 콜옵션 부여 흥행유도

오르면 재무적 투자자가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KB금융의 경우 인수 능력은 있지만 최근 LIG손해보험 M&A로 사업구조가 안정화됐다는 점에서 유인책이 낮다. 동종업계 합병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에서 내부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업계는 교보생명 인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KB금융이 포기한다면 입찰은 무산된다. 현행법상 일반경쟁입찰은 복수 후보가 들어와야만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신재운 위원장은 "두트랙 방식, 콜옵션 등 새로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추진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간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옵션 부여해 흥행 유도 = 공자위는 유찰을 막도록 '30% 통매각' 그룹에 입찰하더라도 '10% 분산매각' 그룹에도 동시에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생명이 양쪽 그룹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유찰을 최대한 막으려 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울러 공자위는 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신재운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태평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96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 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했다. 소수지분 입찰 흥행을 위해서다. 다만 입찰이 종료된 이후 콜옵션을 바로 행사할 수 없도록 행사제한 기간(예: 3~6개월)을 설정할 예정이다. 최소입찰 규모는 0.5%다. 돈으로 따지면 400억원에 달한다. 박상용 공자위 위원장은 "콜옵션 행사 기간인 3년 정도의 장기 투자계획을 가진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경영권 입찰	우리은행 매각방식 (동시분리입찰 주요내용)		소수지분 입찰
30%	매각수량	26.97%(콜옵션 대비분 포함)	
30%	개별 입찰허용수량	0.5%~10%	
별도 없음	투자유인	콜옵션	
일반경쟁입찰	입찰방식	희망수량 경쟁입찰	
가격 외 질적요건 감안 가능(단수의 낙찰자)	낙찰자 결정	가격순으로 희망 물량 배정(복수의 낙찰자, 가격차별)	
일반 M&A 절차	입찰절차	신속절차(예비입찰 없음)	

동시분리입찰 추진일정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2월	상반기
합병 절차	지주-은행 합병							
매각 절차	경영권지분 매각	시정수요 조사	매각 공고 (공통)	예비입찰	최종입찰 대상자 선정	본입찰	우협 선정	계약 및 Closing
	소수지분 매각	(공통)	(공통)	본입찰	낙찰자 선정 Closing			

*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황변동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 변경 가능
* 본진 입찰과는 별개로 우리금융지주는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7~10월 사이에 최소 2개월간 기업설명회(Non-Deal Roadshow) 실시 예정

우리은행, 내년 상반기 새주인 품에

9월 매각공고...소수지분 12월 입찰

우리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새주인 품에 안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고 8월 말까지 소수지분 투자 및 경영권 인수 수요 등 시장의 투자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조사 후 콜옵션 행사가격, 기타 콜옵션 세부내용 등 입찰조건 관련 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소수지분 입찰 및 경영권 입찰의 매각공고는 9

월경에 동시에 실시된다. 이후 11월 말경 입찰제한서를 접수하고 낙찰자는 12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박상용 공자위 위원장은 "입찰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소수지분 입찰의 낙찰자 및 경영권 지분 입찰의 최종입찰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소수지분 입찰은 12월 중 이뤄진다. 주식양도 및 매각대금 수령 등도 함께 종료된다.

경영권지분 입찰은 내년 초 본입찰을 실시해 상반기 중 최종인수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체결 및 주식양도·매각대금 수령 등도 함께 마칠 계획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4조 남은 우리銀 공적자금 회수될까

경영권 인수자 프리미엄 지급 관건 최종 매각 전에 중간배당 가능성도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방은행과 우투패키지 매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우리은행만 매각하면 성공리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15년 전 12조7000억원을 투입한 공적자금이 언제 회수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56.97%의 지분 중 30% 이상을 '통매각'하는 경영권 인수목적의 A그룹과 10% 이하의 지분을 '분할매각'하는 투자목적의 B그룹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A그룹은 매각시 경영권이 포함되며,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B그룹은 순수 투자 목적의 그룹이다. A그룹엔 추가 지분인수를 원하면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도 부여한다. 금융권에서는 B그룹 투자자들이 지금의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을 요구할 것인 관측이 있다. 지분투자 목적이라 할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낮았던 가격만큼, 경영권을 인수하는 쪽에서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우리금융 공적자금 회수현황	
총 투입자금	12조7663억원
회수금액	8조5592억원
지분·블록세일·배당 등	5조7589억원
경남·광주은행 매각	1조7303억원
우리투자증권패키지	1조700억원
남은 회수금액	4조2071억원

한다. 정부가 공적자금 100% 회수를 원해서다. 대신증권은 원금 기준 100%를 회수하려면 우리은행 매각 가격이 주당 평균 1만3697원씩은 받아야 한다고 추산했다. 1만3000원 후반대 주가는 국내의 투자자들이 올해 국내 경제회복 기대감에 부족했던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도 하루밖에 찍지 못한 전 고점이다.

현재 우리금융의 남은 회수금액은 총 4조2071억원이다.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999년부터 총 12조7663억원이다. 지금까지 공모, 지분 블록세일, 배당 등으로 5조7589억원을 회수했고, 경남·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등 자회사 매각으로 8조5592억원을 회수했다. 따라서 우리은행 매각을 통해 4조3000억원 이상 받아야 공적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정부가 우리은행 최종 매각 전에 중간배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배당이면 당장 기업가치 훼손은 피할 수 없지만 인수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Da Nang

45th ANNIVERSARY

보물찾기는 해적만의 것이 아니다
에스리움이 따른 새로운 시대
추억의 장르는 다원화될수록 좋다

하나의 색깔로
정의할 수 없는 당신은

A1 당신에겐 시간을 넘나드는
무지개 빛 여행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낭만 다낭 자유여행]

누구나
적마다의
여행이 있다

네트샵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호찌민 하노이 다낭 나트랑 /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찾아보세요 당신만의 여행을
travel.koreanair.com

행정 공백 장기화에 민생 올스톱

정부 조직개편 시점 지연
부처간 정책 발표 혼선만
국회 원구성도 3주 늦어
경제운영 내달 지각 발표

국무총리 임명지연과 2기 개각 능력 출범으로 우려되는 국정공백	
정부조직 개편	국가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축소
국가개조 및 경제혁신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공직사회 혁신(관피아척결)
경제활성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 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및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발표 지원, 내년 예산안 편성 차질
부처간 갈등 조정 미흡	저탄소차 협력규제도, 임대소득 과세, 담뱃세 인상, 군복무 학점 인정 등 각종 정책을 둘러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간 불협화음 계속

국정이 고장 났다. 2기 내각이 꾸려졌지만 취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계속된 국무총리 인사 파문과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 때문이다. 국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부처도 몸살을 앓고 있다.

있다. 저탄소차협력규제도 도입, 담뱃값 인상, 군복무 학점 인정, 임신휴가제 도입 등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혼선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 부처가 때 이른 '데일드' 위기를 맞으며 민생 행정이 진공상태에 처한 셈이다.

회되더라도 후임이 정해져 업무 수행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된다. 세 달 가까이 사실상 총리 공백사태가 계속되며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공직사회 혁신(관피아 척결) 등 국가개조 및 경제혁신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축소 등 정부 조직 개편 시점도 미뤄질 수밖에 없음을

물론이다. 여기에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3주 이상 지연되면서 2기 개각이 마무리되지 않아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장관들도 붕 떠 있는 상태. 이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접점을 찾았다지만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되더라도 분회의 표결까지 20일 이상 걸린다.

각 기관이 속속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기부양을 통해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거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조타수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후임자인 최경환 후보자도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경제부총리 교체로 통상 6월 말 나오는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은 일러야 다음달 둘째 주는 돼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민경 기자 puri21@

'차떼기' 이병기 '논문 표절' 김명수·정종섭도 野 "후보 부적격... 반드시 낙마"

2기 내각 전면 재검토 요구

야당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사퇴압박을 펼치며 2기 내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 참극'이라 불리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포함, 최소 3명의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23일 "지금 내각 전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마당에 최소 3명은 낙마시켜야 야당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 특보로 활동하면서 '차떼기 돈' 배당책으로 의원회유 공작에 가담한 바 있다.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자기 표절'로 드러난 논문이 무려 11건에

달해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교수 승진에 필요한 논문을 표절해 제출하고 표절한 논문으로 수천만원의 연구비까지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군복무 기간과 박사학위 준비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논문 중복게재로 '자기 표절' 의혹도 사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를 향해 '유신시대의 인물'을 내세우면서 개혁한다는 건 난센스라고 비판했으며,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 무장 봉기로 규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장관 후보자들 '지키기'에 들어갔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단순 정치자금 전달자 역할만 했다"면서 "만약 정식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 선고가 나왔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문 총리 후보자를 지키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시간 달라던" 文... 오늘은 "조용히 기다리겠다"

정부청사 출근길에 밝혀
거취 문제 청와대로 떠넘겨
靑 '자진사퇴' 중용 부담
朴 지지율은 44%로 하락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퇴 압박에 직면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사실상 청와대에 떠넘겼다. 문 후보자는 23일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로비에서 "주말 동안 자진 사퇴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럴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향후 거취에 대한 의논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진사퇴를 기대했던 청와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됐다. 문 후보자는 주말 동안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 관계자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은 사실상 이를 뒤집은 것이어서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 후보자의 이번 언급은 향후 '자진사퇴'를 비롯해 어떤 결론이 내려도 이

것은 '청와대의 뜻'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후보자가 전날 '조금만 시간을 주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오늘 중 자진사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니 조금 당황스럽다"고 했다. 지난 22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

석비서관회의에서는 문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 역시 이런 뜻을 김 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등을 통해 재차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오늘 중 사퇴 회견을 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의 이런 기류는 박 대통령이 제야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더 이상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 69주차 지지율은 전주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44.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0%포인트 상승한 49.3%로 나타났다. 김익중 기자 zerg@

"뺏다방, 법 고쳐 세금누수 막아야"

특수거래판매 '방관법' 적용
이명수 의원 공청회서 제언

경찰청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뺏다방' 업주 587명을 적발한 가운데, 전국에 홍보관 등 '뺏다방'이 5000여개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뺏다방'은 주로 중년 여성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강매로 폭리를 취하는 데다 탈세의 온상으로도 지목되면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및 법 공청회'를 열고 특수거래판매, 속칭 '뺏다방'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김석범 국제특수거래진흥원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소위 홍보관, 체험방에서 1년 미만의 한정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하다가 매출이 부진하면 영업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 벌이는 거래 형태가 특수거래판매"라면서 "전국적으로 홍보관 1000여개, 체험방 4000여개로 종사자 수는 20여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김태석 박사는 이러한 특

수거래판매의 문제점으로 △허위·과대 광고 만연 △교란·환불 및 애프터서비스 불가 또는 절차 복잡 △강매 혹은 외상거래를 통한 중동구매 부추김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언에 따르면 단위사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이 2억원 내외로 파악된다"며 "다만 특수거래판매업의 특수한 성격상 매출 이익의 30~40%를 사은품 제공과 같은 판촉활동비에 쓰는데 이에 대한 세제 정비 미비로 (소득세) 불실성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특수거래판매도 '방관법'에 적용받도록 법을 고쳐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하에 두고 세금 누수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홍보관, 체험방 판매만을 한정해 특수거래판매업으로 인정하고 공청위의 지도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 역시 "특수거래판매는 피해액이 급증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데도 이들을 규제할 근거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관법 폐지의 정의 범주에 포섭시키고 판매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시키는 등 제도적 양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1시간 속성 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B, J, 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 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주택보유자 '청약 1순위' 혜택 확대

1순위 요건 개편... 청약가점 수도권 줄이고 무주택자 축소 검토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된 주택청약제도가 주택보유자에게까지 그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주택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현 집'을 새 집으로 교체하는 수요까지도 정책적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과거 주택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 도입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 공급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주택청약의 1순위 요건 개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청약가점제를 개선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 경우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데 비해 지방은 6개월로 차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업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1순위 요건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또다른 검토 대상은 가점제의 개편이다. 최근 무주

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밝힌 바 있는 만큼 유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가점을 축소하고, 기간별로 나뉜 구간 수도 줄이는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계해 왔던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나선 것은 제도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장 상황이 변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주택자에게 1순위 자격을 준 것은 현 집 한 채를 가진 경우 팔고 새 아파트로 쉽게 옮겨가도록 도와준다는 취지"라며 "주택교체 수요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점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우선원칙을 유지해야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현재에도 몇백만명의 대기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점제를 폐지하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남한산성 세계유산 올랐다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 카타르 도하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 나선화 문화재청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김문수 경기지사(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등재가 확정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 문화재청

윤리심사 안 지키고 재취업한 퇴직관료

1472명 중 46% 의무 심사 위반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판피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절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윤리심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취업심사 의무를 위반해 무단으로 취업한 '임의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재취업 퇴직공무원 총 1472명의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는 같은 기간 684명이었다.

처벌은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형이라는 이유

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숨방망이'에 그쳤다. 2011년부터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법개정 이후 임의취업자 227명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34건에 그쳤다. 그나마도 34건 중 30건이 300만원 이하였고 최고액 500만원 이상이 부과된 사례는 1건뿐이었다.

진 의원실 측은 "퇴직관료들이 취업심사 의무를 무시하고 임사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이 만연한 것은 임의취업으로 적발돼도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취업심사가 원칙에 따라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판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취업심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취업이 제한된 비율은 1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1~2013년의 제한 비율 6.7%의 2배를 넘는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선거 끝나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서울 도시가스, 부산 상수도 인상 예정

6·4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 부산, 경북, 경북, 대구,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제주 등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은 도시가스 요금을, 부산은 상수도 요금을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서울은 5년 만에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인상폭과 인상 시기는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부산은 지난해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새 시장 취임 이후 이뤄진다.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할 예정인 지역도 많다. 목포 등 전라남도의 11개 시·군은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4% 인상할 예정이다. 경남의

지자체들도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는 이번 주 내 지역경제협의회를 열고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충북·충남·전북도 도시가스 요금조정에 대한 용역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다음 달 중순부터 입석이 금지되는 수도권 직행좌석서비스(광역버스) 요금은 증차 등으로 업계의 부담이 늘어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와 인천은 아직 광역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들 지자체의 새 단체장이 취임하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이외에 철도 등 공공기관들의 공공요금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에 요금 조정 등이 담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길을 열어 놓았고 도로공사는 2월 국회에 부처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금리 나침반 '인하'로 돌아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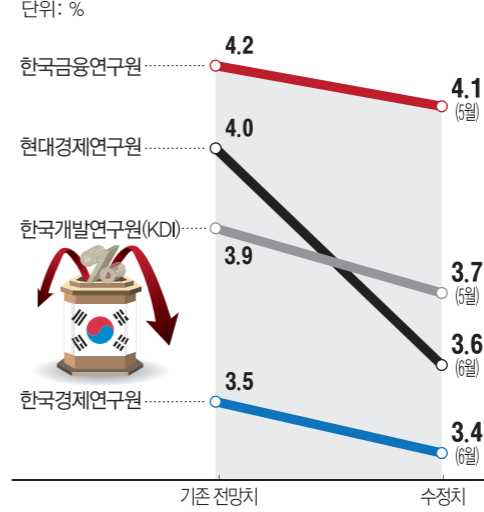
연구기관, 성장률 잇따라 하향조정 내수부진 만회할 '월드컵 특수' 실증 美·中·日등 주요 교역국 성장률 둔화 하성금 통위원 '인하 시사' 논문

금리 '나침반'이 인상에서 인하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얼마전 금리 인상 '깜빡이'를 꺾지만 장기적인 금리 방향성을 나타내는 금리 나침반은 여전히 인상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금리 나침반마저 인하로 틀어막아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의 잇따른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월드컵 특수 실증, 주요 교역국 성장률 둔화조정,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내용의 금통위원 논문 발표 등 금리인하 요인이 즐비하다.

이 총재는 지난 4.5월 '금리 방향성은 인상에 있다'라고 한 발언에서 최근 한발짝 물러났다. 그는 이달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깜빡이를 일찍 꺾다"며 명시적으로 금리인상 기조에서 후퇴했다. 그러나 금리의 장기적 방향성이 인상이라는 시각을 유지했으며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주지 않았다.

문제는 최근 경제상황이 금리인상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 총재가 금리조정 전제조건 중 하나로 든 성장률이 하향조정

주요 연구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이 내달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러 연구기관들이 최근 잇따라 내수부진을 주요인으로 들며 경제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2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6%로 대폭 낮췄다. 특히 내·외수 동반침체로 인한 더블딥(경기 반짝 회복 후 다시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같은 날 금융연구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4.1%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전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지만 소비심리 위축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에 따라 세월호 참사가 경제성장률 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에서 3.7%로 낮췄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3.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를 만회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월드컵 특수도 미지근하다. 가전업체나 길거리 응원원이 펼쳐진 주변 편의점 정도만 매출 효과를 누릴 뿐 유통업계, 식음료 업계, 광고업계, 숙박업계 등 체감 업종에서 업황 호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3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의 성장률이 줄줄이 하향조정되는 추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한 2.8~3.0%에서 2.1~2.3%로 대폭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2%로 0.3%포인트 내렸다. 중국의 경우 1분기 성장률 역시 목표치인 7.5%를 하회하는 등 경착륙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6명의 금통위원 중 한명이 최근 금리인하에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하성금 통위원은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 지난 13일 한국금융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소비 위축을 억제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내용의 '통화정책의 소비변동 효과-미시적 실증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3개월간 이어져 온 만장일치 금리동결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진명 기자 mint@

이러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은 꿈바라기

오직 고객의 꿈만 바라보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은행이 지켜야 할 금융의 기본이 보입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고객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금융!
고객과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금융브랜드 대한민국 1위, 세계 43위 |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PB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대한민국 1위, 세계 30위
The Banker誌 선정 | EUROMONEY誌 선정 | 다보스 포럼 발표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 BNP 파리에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터시스템 | 신한아이티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국민銀 경영진-사외이사 갈등 격화

오늘 오전 임시이사회 열고 한국IBM 공정위 신고 논의
사외이사들이 직접 주도해 경영진 반대에도 신고 강행 전산 교체 다시 '날선 대립'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임시 이사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이날 강희복, 조인호, 송명섭, 박재환 사외이사(왼쪽부터)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강행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의견 교환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국민은행 이사회와 내부 갈등이 경영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23일 오전 9시 여의도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IBM을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IBM과의 메인프레임 시스템 사용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은행이 시스템을 연장 사용할 경우 매달 약 90억원의 활용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기존 계약 내용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고 사유다. 국민은행은 이사회 갈등으로 유니스

(UNIX)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중단돼 내년 7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존 IBM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임시 이사회 개최와 안전 상정은 이 건조 국민은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는 물론 은행 임원진의 관여를 배제한 채 사외이사들이 직접 주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부문에서 사외이사들이 경영 안건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민은행 이사회(10명)는 사외

이사 6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번 이사회 개최로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국민은행 이사회와 내부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되고 이사회가 안정되기 전까지 국민은행의 경영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외이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경계제 통보를 받은 상황을 고려하면 공정위 제소를 통해 이사회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도 나온다. 사외이사들이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사외이사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해당 이사진 8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난 4월 24일 유니스 전환을 승인한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imjm@

말뿐인 '관피아 척결'

금융권 관료 출신들 연임하거나 자리만 옮겨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가 커지는 가운데 공직 출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들이 떠나없이 임기가 연장되거나 다른 금융사로 옮겨 앉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한국거래소, 삼성카드 등 올해 3~4월 김용우·신연성·정장모·김성배·정태문 감사가 연임하거나 임기가 연장됐다. 오는 24일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병기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연임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오는 7월에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윤영일 기업은행 감사도 임기 연장이 확실시된다. 광주은행에서는 2007~2008년 감사를 지내고 신한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로 옮겨온 한복환 감사가 올해 3월 다시 감사로 복귀했다. 김용우·신연성·정태문·윤영일 감사는 감사원 출신, 정장모·한복환 감사는 금융감독원 출신, 김병기 사장과 김성배 감사는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공직자 낙하산을 일컫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기관들이 꺼려하면서 새로운 낙하산은 오지 않지만 기존 관피아들의 임기가 늘어나거나 재임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반사 효과로 금감원 출신 감사의 임기가 대거 연장돼 이번에도 이 같은 현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용수 코리아리 감사, 나명현 현대해상 감사, 남인 전 신한카드 감사는 2009년 나란히 금감원을 나와 2012년 각각 연임에 성공, 5~6년씩 감사 자리를 유지했다. 박병명 LIG손해보험 감사는 최 감사, 나 감사, 남 전 감사와 함께 2009년 금감원을 나와 전북은행 감사를 맡고, 2012년 LIG손해보험으로 옮겨 또 감사 자리에 앉았다. 이성조 한화손해보험 감사는 지난해 연임에 성공, 2010년부터 내년까지 6년간 감사를 맡게됐다. 노승방 전 메리츠화재 감사는 2010년부터 3년간 감사로 지내고 지난해 메리츠화재 감사위원회 총괄이 됐다. 박엘레 기자 ellee@

금감원 '산은, STX 대규모 부실대출' 정황 포착

산은 대출규모 3조5000억원
STX 여파 13년만에 첫 적자
일부 직원 연루 가능성 무거
내달 심의위 열고 징계 결정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의 STX그룹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대규모 부실 정황을 포착했다. 산업은행은 STX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 은행권의 대출 규모 10조원 중 가장 많은 3조5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STX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특별검사 결과 대출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실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2841억원 배임과 557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조3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이를 이용해 9000억원의 사기성 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 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해운경기 불황으로 위기를 맞은 STX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3264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거액의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고 STX에 대출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산

업은행 직원의 리베이트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은행에 대해 STX 건과 관련해 종합검사를 한 뒤 최근 추가 검사를 해서 부실 정황을 포착했으며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려 한다"면서 "징계 수위까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강만수 당시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까지 문책당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고위 임원들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STX그룹의 부실을 떠안으면서 200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조4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STX 그룹 계열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맞으면서 대규모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대손충당금은 1조7731억원(대손비용 약 2조2000억원)으로 2012년 7825억원보다 9906억원이나 급증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태문 전 부실대출 여부 밝히는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감사에서 여신 승인신청서 작성 및 대출약정서 작성 업무 태만,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소홀한 점을 적발해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안철우 기자 acw@

동부화재 중국시장 출사표

중 앙청보험 지분 15.01% 인수
2020년까지 동남아 진출 계획도

동부화재가 중국 증정, 상하이 등 14개성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우량 손보사인 안청보험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지난 4월 동부화재는 안청보험 지분 15.01%를 인수한 바 있다. 동부화재는 중국시장 진출을 계기로 2020년까지 동남아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부화재는 지난 19일 중국 증정 컨벤션 센터에서 김경남 대표이사 사장과 순리다 안청보험 대표이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동부화재-안청사간 보험협력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수십 년간 보험업 영위를 통해 축적한 동부화재의 노하우를 안청보험 경쟁력 제고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협력사업 진행을 통해 한중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화재는 향후 안청보험사와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부화재 임직원들 중국 현지로 파견해 안청보험사 핵심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청보험사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부화재는 중국 보험시장에서의 사업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독자적인 법인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에는 동남아 보험허브로서 동남아 시장의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동남아 최대 보험시장인 말레이시아에는 현지 사 지분 투자후 단계적 경영권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 동부화재의 목표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는 베트남에 영업거점을 확보 후 단계적 진출한다. 동남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에는 가계성 보험시장 중심 현지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kkk@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일상에 한번은 역사에 미쳐라!

중국을 만든 사람들

역사가 된 그들의 뜨거운 이야기
삼국지보다 빠르고 흥미진진하게 중국을 읽는다!

현경병 지음 | 248쪽 | 15,000원

첫째, 독서광이 되어라.
죽기 직전까지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공자를 비롯해 진시황, 조조, 당 태종, 주원장, 강희제, 건륭제, 모택동, 덩소평 등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책을 통해 얻었다.

둘째, 자신에게 엄격하라.
남 탓을 하거나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뚜렷한 목표를 세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바를 늘고 민하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다잡고 고쳐가며 목표를 이루었다.

셋째,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라.
위대한 인물일수록 힘든 시절과 어려운 형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역경이 많고 길고 힘들수록 어떻게든 견뎌내며 더 크고 높은 꿈을 성취했다.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에너지코리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부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확보에 땀 흘리는 것은
세계 앞에 당당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



글로벌 에너지 종합기업, KOGAS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행복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ETTER ENERGY, BETTER WORLD

기아차 장기근속자 자녀 합격률 '4배'

1.41%...일반 지원자는 0.32% 가산점 5% '세습 채용' 현실화

현대판 '음서제'로 논란이 됐던, 기아차 동차의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 가산점 효과가 현실화됐다. 올해 생산직 신입채용에서 장기근속자 자녀의 합격률은 일반직 지원자 합격률의 4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아차 노조가 지난 18일 소식지를 통해 공개한 '2014년 생산직 채용결과'에 따르면, 올해 생산직 신규 채용인원 176명 가운데 5.7%인 10명이 장기근속자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근속자 자녀 합격률은 일반지원자의 합격률의 4배가 넘었다. 일반 지원자는 5만325명 중에 0.32%(161명)가 채용되는데 그쳤지만, 장기근속자 자녀는 710명 지

원자 중에 1.41%(10명)가 채용됐다. 1차 서류합격 비율도 장기근속자 자녀 합격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일반 지원자의 1차전형 합격률은 1.08%에 머물렀지만, 장기근속자 자녀는 24.93%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지원자의 서류합격률인 1.42%의 17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평균 임금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생산직 신규 공채에는 5만1398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29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기근속자 자녀 합격률이 높은 것은 올해부터 적용된 가산점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생산직 신규 채용 때 면접대상 인원의 25% 범위 안에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면접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장기근속자 자녀는 2차 전형(면접) 때 면접점수

구분	일반	장기근속자 자녀	사내하청	계
지원자	5만325명	710명	363명	5만1398명
1공장 증산/결원충원				
서류합격자	542명 (1.08%)	177명 (24.93%)	13명 (3.58%)	732명 (1.42%)
최종합격자	161명 (0.32%)	10명 (1.41%)	5명 (1.48%)	176명 (0.34%)

의 5%(3.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또 총점 동점자가 나올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해 일반 지원자와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의 반발도 나왔다.

노조는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은 고작 5.6%로 노조는 매우 안타깝게 느끼고 있다"며 "올해

단합계정시 장기근속자 자녀가 실질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세습 비율제'를 요구해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취업컨설팅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구직자의 85.7%가 세습 채용에 반대한다고 답한 결과가 있다"며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은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일으키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암초 만난 SK 中 수처리 사업

에코니티와 합작법인 설립 무산 "우선순위 밀려...계속 조율 중"

SK가 중국에서 적극 추진 중인 수처리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23일 관련회사에 따르면 SK는 중국 수처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에코니티와 체결한 합작법인 설립이 올해 초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 최대 수처리 분리막 제조회사인 에코니티는 하·폐수 처리수 정수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GE, 지멘스 등 외국 기업들이 장악한 국내 분리막 시장에서 10년 만에 3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 업체로 성장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 2012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수처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는 중국에서 펼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처리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으며, 이에 에코니티와의 합작사 설립은 그룹 내 수처리 사업의 첫 행보였다. 이를 통해 중국 환경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

에코니티 측은 "협상조건이 맞지 않아 올해 초 무산됐다"고 짧게 설명했다.

SK그룹 측은 "에코니티와 맺은 합작법인 설립을 놓고 양사 간의 협의를 계속 해 왔다"며 "그러나 수처리 사업은 중단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SK는 중국에서 SK차이나를 통해 에너지, ICT, 유통·물류, 도시개발 등으로 사업 부문을 두고 있다. 이 중 도시개발부문의 일환으로 환경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사업을 주력 사업 방점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산업용 배수량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수질개선에 대한 기준 강화를 대비한 수처리 사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SK그룹 관계자는 "수처리 사업은 중국에서 펼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라며 "통신·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재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진 기자 sinembargo@

한·미·일·중 차 리콜 급증 1~5월 2680만대...85.5% 늘어

최근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자동차생산국 시장에서 리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 22일 발표한 '세계 자동차 리콜 사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1-5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4개국 시장에서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실시한 리콜 대수는 전년 동기보다 85.5% 증가한 2680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리콜 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6만1000대에서 12만2000대로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올 1-5월 미국시장에서 제너럴모터스(GM)의 리콜 대수가 동 기간 판매량의 11배를 초과하는 1376만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주요 완성차업체의 리콜 대수는 판매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GM은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리콜이 급증하면서 판매 점유율이 올해 1-5월 17.6%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토요타 역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대량 리콜을 실시하며 올해도 미국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2009년(17.0%)에 미치지 못하는 14.3%를 기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 휴대폰·반도체 특허 세계 1위

LG전자는 2위 기록

삼성전자의 휴대폰, 반도체, 스마트미디어 부문 특허 출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톰슨 로이터가 발표한 '2014 혁신 현황(2014 State of Innov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휴대폰 특허는 2179건으로 반도체 재료 및 공정 특허

(1362건), 스마트 미디어 특허(245건)와 함께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휴대폰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가 1678건의 특허를 출원해 2위에 올랐다. 이어 미국 퀄컴(1383건), 일본 소니(1071건), 일본 파나소닉(976)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재료 및 공정 부문에서도 LG전자가 1223건의 특허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만 TSMC(1057건), 일본 도시바(1045

건), 미국 IBM(1036건)이 그 다음으로 특허 출원이 많았다.

스마트미디어 부문에서는 도시바(109건), 토판 프린팅(103건), 소니(78건), 파나소닉(74건) 등 일본 기업이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2-5위를 차지했다.

삼성엔 의료기기 특허 출원 세계 9위(246건), 대체연료 차량 특허 출원 세계 8위(444건)에서도 각각 이름을 올렸다.

서지희 기자 jhsseo@

"스마트폰 위기 극복"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25~27일... 임직원 700여명 참석

삼성전자 국내외 임직원 700여명이 모여 하반기 경영전략을 논의한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 기흥 사업장 등지에서 세세 사업 부문 500여명, 부품 사업 부문 150여명 이상의 임원들이 참석해 부품(DS), 소비자가전(CE), IT·모바일(IM), 전자 부문 등으로 각각 나눠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글로벌 전략회의'를 사흘간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매년 상반기(6

월)와 하반기(12월) 두 차례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부품별 회의는 각 사업부의 수장들이 직접 주재한다. 권오현 부회장이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윤부근 사장 TV·가전, 신중균 사장 휴대폰·컴퓨터, 이상훈 사장 전자부품 회의를 각각 챙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전략회의는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 대내외적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전략 수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

인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최근 증권가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향 조정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등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증권사는 스마트폰, 태블릿 사업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을 8조원 이하로 낮췄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스마트폰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하락을 예상하며,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7조9000억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효진 기자 js62@



현대백화점, 8월까지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목동점을 시작으로 킨텍스점·미아점·울산점·충청점 등에서 어린이 안전체험학교를 8월까지 운영한다. 백화점 고객 자녀는 물론, 학교와 복지시설을 연계해 소외계층 아동을 초청해 하루 360명의 어린이가 체험에 참여한다. 22일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OZ

재개발 없이 그대로 앱에서 보고서를 본다!

하나의 소스로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 OZ

OZ Report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PC에서 별도의 개발 없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www.forcs.com

(주)포시에스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2층 · 대표전화 02)828-1400 / 제품문의 02)828-1431 / 팩스 02)828-1414

한·중·일 무한경쟁... 승기 잡은 한국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 추이 (용량기준, MWh)

구분	업체명	2011년	2012년	2013년(추정)	순위(2013년 기준)
한국	LG화학	186	817	1636	1위
	삼성SDI		43	240	4위
	점유율	13.6%	30.5%	41.3%	
일본	AESC(닛산·NEC 합작사)	966	1313	1593	2위
	PEVE(도요타·파나소닉 합작사)	11	50	101	5위
	LEI(미쓰비시·GS유아사 합작사)	99	231	51	7위
중국	파나소닉	36	241	574	3위
	점유율	81.3%	65.1%	51.1%	
	A123		16	70	6위
점유율	0.0%	0.6%	1.5%		
기타(소량생산업체)		69	107	272	
합계		1367	2818	4537	

배터리 제조사별 고객 현황

LG화학
GM, 르노, 현대·기아차, 포드, 볼보, 이튼, 상해기차, 장안기차, 제일기차, Qoros 등 20여개사

삼성SDI
BMW, 마인드라, 크라이슬러, 델파이 등

SK이노베이션
미쓰비시, 현대·기아차, 북경기차 등

LG화학·미·유럽 완성차업체 공급계약 전통 강호 日 누르고 작년 점유율 1위 삼성SDI·SK이노 포함 40% 웃돌아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업체들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LG 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업체들이 전통의 강호인 일본 업체들을 앞지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개 업체는 향후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의 강호 누르고 2차전지 =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내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 업체를 누르고 판매 1위 업체로 올라선 것. 배터리 시장 선도 기업으로 떠오른 주인공은 LG화학이다. 일본 시장조사 업체인 B3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 1636M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판매해 1593MWh를 판매한 일본 AESC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전기차가 부각되기 시작한 2009~2011년 일본 업체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70.4%에서 81.3%에 달했다.

도요타와 닛산, 미쓰비시 등 전기차 선도 기업들이 중국 합작사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은 탓이다. 같은 기간 한국 업체로는 LG화학이 홀로 배터리를 판매하면서 점유율이 20% 안팎에 그쳤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들과 공급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들이 약진하기 시작했다. 2011년 13.6%이던 한국 업체 점유율이 작년에는 41.3%로 급증해 51.1%를 기록한 일본 업체들을 바짝 따라잡았다. 관련 업계는 올해가 한국 업체와 일본 업체의 점유율이 뒤바뀌는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회의 땅 선점하라 =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향후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전기차 시장을 급팽창시킬 것이라 전망이다. 이에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지 공장을 짓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 내린 말 조예정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2020년까지 누적 기준 전기차 500만대 보급 계획을 내놨다. 중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차량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친환경차 판매는 2009년 3500여대에서 작년 4만2000여대로 4년 새 1000% 이상 급증한 바 있다.

전기차 배터리 3사 중 후발업체인 SK이노베이션은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함께 ‘베이징 베스프 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연간 전기차 1만대 규모의 배터리 팩 제조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작년 배터리 판매량 글로벌 4위로 성장한 삼성SDI 역시 중국 안경환신그룹과 합작해 산시성 시안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1위 완성차 업체인 상해기차와 코로스 등 2개사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LG화학은 중국 내 글로벌 업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하반기 현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배터리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rdn@

타보니

메르세데스-벤츠 ‘SLK 55 AMG’

날렵한 스포츠카...속도내니 목직하네

100km 4.6초만에 돌파 가속력 짜릿



메르세데스-벤츠 ‘SLK 55 AMG’는 지붕을 폼다 접었다 할 수 있는 2인승 스포츠카를 일컫는 ‘로드스터’의 교과서다. ‘스포티하고(sportlich)’, ‘가볍고(leicht)’, ‘짧다(kurz)’는 뜻의 독일어에서 앞글자를 따 SLK 시리즈는 스포티한 디자인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

지난 17일 열린 ‘드림카 나이트 드라이브’ 행사에서 벤츠 SLK 55 AMG를 타고 서울 도심과 경기도 양평 일대를 달렸다. 시동을 걸자 목직하네 엔진소음이 들리며 질주 반응을 서서히 속력을 높여왔다. 5500cc 엔진 배기음이 온몸을 휘감으며 도로를 헤쳐나갔다.

SLK 55 AMG는 운전자가 원하는 드라이브를 그대로 구현한다. 시속 100km 이하로 서행할 때는 배기량 2000cc의 중형차를 몰듯이 밝아도 차가 갑자기 튀거나 하는 현상을 찾을 수 없었다. 핸들도 적당히 묵직해져 안정성을 높였다.

하지만 정지 상태에서 100km/h를 4.6초 만에 돌파하는 반전있는 모습도 갖췄다. 주

행 시에는 부드러운 배기음을 연출하지만,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며 고출력 드라이브에 돌입했을 때에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AMG 엔진만의 배기음을 내뿜었다.

SLK 55 AMG에는 신형 5.5ℓ V형 8기통 AMG 엔진과 AMG 스피드시프트 플러스 7G-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장착돼 최고 출력 421마력(6800rpm), 최대 토크 55.0kg·m(4500rpm)의 강력한 주행능력을 발휘한다. 실제 시속 80km로 달려도 분당 회전수(rpm)는 1300에 불과했다. 100km에서 1600rpm, 120km에서 2000rpm 정도를 보이며 뛰어난 힘을 자랑했다.

SLK 55 AMG의 연비는 9.1km/ℓ, 가격은 1억3300만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매년 신차 출시... 럭셔리 시장 공략”

지엠코리아 ‘올 뉴 캐딜락 CTS’ 시승행사 장재준 대표 “수입차 점유율 10% 목표”



지난 19일 ‘올 뉴 캐딜락 CTS’ 미디어 시승행사에 앞서 장재준 지엠코리아 대표(왼쪽 두 번째)와 마크 코모 한국지엠 부사장(맨 오른쪽)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지엠코리아

지엠코리아의 브랜드 ‘캐딜락’이 국내 고급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차 출시와 판매·전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캐딜락은 지난 19일 서울 인촌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신차 ‘올 뉴 캐딜락 CTS’ 미디어 시승행사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장재준 지엠코리아 대표는 “매년 신차를 한 대 이상 출시하며 향후 5년 내 90% 이상의 럭셔리 세그먼트 라인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10년 내 국내 럭셔리 수입차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캐딜락은 올 뉴 CTS를 비롯해 올해 총 2종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캐딜락은 올 뉴 CTS 흥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에 열린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이 차량을 국내에 최초로 공개했다.

장 대표는 “3세대 CTS는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를 정조준해 개발된 세그먼트로, 제품 설계부터 차량의 성능과 편의사양, 안전성 등이 고려된 모델”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캐딜락은 그동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작년 한해 동안 300대를 팔며 수입차 시장 점유율 0.19%를 차지했고, 올 1-5월에도 86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0.11%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캐딜락은 수입차 전체 23개 브랜드 가운데 미쓰비시, 롤스로이스에 이어 하위 3위를 기록했다.

캐딜락의 전략이 달라지게 된 것은 국내 수입차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는 고급차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마크 코모 한국지엠 영업·AS 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한국의 럭셔리 수입차 시장은 매우 인상적”이라며 “이 같은 수입차 성장 트렌드를 지엠도 따라가려 한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1000만원대 수제화...발리 ‘마이 스크리브’ 출시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전문기업 한성이 국내에서 전개하고 있는 스위스 럭셔리 패션 브랜드 발리가 23일부터 최고급 슈즈 컬렉션 ‘마이 스크리브(My Scribe)’를 선보인다.

‘마이 스크리브’는 발리가 164년간 쌓아온 프리미엄 구두제작 노하우가 집약되어 만들어지는 최상급 수제화다. 전 세계에서 극소수 매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이 스크리브’의 모든 제품은 특별 주문 제작 형태(Made-To-Order)로 생산되며 주문부터 배송까지 약



12주가 소요된다. 구두 제작은 고객이 구두의 디자인과 소재, 컬러 등을 선택하면 발리의 스위스 공방에서 200여 가지의 공정을 거쳐 제작된다. 모든 공정은 발리 최상위급 장인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총 4년에 걸친 품질 검사를 통과한 구두만이 고객에게 전달된다. 소재와 디자인 등에 따라 판매가격은 170만~1200만원대에 달한다. 이선애 기자 isa@

With Pride
Cwp 한국서부발전 | 주

빛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전기가 있어 행복한 세상!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
한국서부발전이 만듭니다!



http://www.facebook.com/kowepo
일한 영보가 가꾸어온 한국서부발전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이 방문해주세요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 아래 구성원의 열정과 도전,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상생을 통해 전력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G U+도 광대역 LTE-A 대열에 합류

이번주 상용화... '갤S5 광대역 LTE-A' 단말기 준비완료 1만2000편 비디오 제공 '유플릭스 무비' 등 비디오 서비스 89.9 요금제 출시... 85요금제에 4900원 더하면 영화 즐겨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가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 대열에 합류한다.

LG유플러스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단말기 '갤럭시S5 광대역 LTE-A' 출시 준비를 완료했다"며 이번주 내 광대역 LTE-A 서비스 상용화를 선언했다.

내달 1일부터 광대역 LTE-A 전국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인 LG유플러스는 갤럭시S5 광대역 LTE-A 출시를 이어 연내 연내에 6~8종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월 2.6GHz 광대역 주파수와 800MHz LTE 주파수를 묶어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 상용화

시연에 성공했다"며 "트래픽이 폭증해도 안정적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LTE보다 4배 빠른 최대 300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3밴드 CA 기술 시연도 성공했다"며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동 3사 중 가장 먼저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 "편을 뒤집겠다"...비디오 LTE 서비스 "와르르" = LG유플러스는 광대역 LTE-A 상용화에 맞춰 '비디오 LTE' 시대의 본격 개막을 선언했다. 네트워크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디오 서비스는 갈수록 더욱 활성화되고 진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유플릭스 무비

△유플릭스 HDTV 뉴 △유플릭스 내비리얼 △유플릭스 tvG개인방송 △유플릭스 셰어라이브 등 다양한 비디오 서비스를 출시했다.

최다 1만2000편의 주문형비디오를 무제한 볼 수 있는 유플릭스 무비는 월 7000원으로 영화는 물론 미드 등 해외 TV시리즈물까지 즐길 수 있다. 특히 △134개의 세분화된 장르 △실시간형 장르영화 채널 △주제별 큐레이션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유플릭스 HDTV 뉴는 △생방송을 2시간까지 돌려볼 수 있는 '타임머신' △주요 장면을 0.5배속으로 보는 '슬로모션' 등의 모바일 기능을 탑재했다. 유플릭스 내비는 교차로 진입 전 실제 고화질 도로사진을 화면에 자동 노출시켜 운전자의 현실감을 높여준다.

또 개인이 촬영한 화면이 TV에 그대로 전달되는 '유플릭스 tvG개인방송', 동영상 수와 용량 제한없이 대화, 상영 등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유플릭스 셰어라이브' 등도 소개했다.

◇ 최대 73% 저렴 "통신비 절감하자" = LG유플러스는 LTE 비디오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요금제 'LTE8 무한대 89.9 요금제(8만9900원)'도 선보였다. 기존 무한대 85요금제에 신규 오른 유플릭스 무비를 더한 상품으로 85요금제 가입자가 월 4900원만 추가하면 내면 유플릭스 무비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별도 상품 2종도 새롭게 출시했다. 신 상품으로 나온 'LTE8 다모아 비디오'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무비·프로야구·게임 등을 즐길 수 있으며, 'LTE8 비디오팩'은 기본 유플릭스 무비에 비디오 전용 데이터 3GB, HDTV, U+Box를 제공해 73%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각각 9000원이다.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장은 "1등 비디오 서비스로 내 손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뤄지는 새로운 모바일 삶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사 광고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동아에스티 신약 '시벡스트로' 국내서 두 번째 美 FDA 승인

수퍼박테리아 치료 항생제 연 2000만달러 로열티 기대

동아에스티의 수퍼박테리아 타겟 항생제인 '시벡스트로(테티졸리드 성분)'가 22일 미국 FDA의 신약 허가 승인을 받았다. 토종 신약이 FDA의 관문을 뚫은 것은 2003년 LG생명과학의 '팩티브' 이후 두 번째다.

시벡스트로는 'MRSA(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 일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수퍼박테리아로 인한 급성 세균성 피부 감염을 치료하는 '옥사졸리딘' 계열의 항생제다. 시벡스트로는 특히 환자에게 투여한지 6일 만에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 화이자 '자이복스'에 비해 4일 가량 더 빠르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한 소화불량, 설사 등 소화기계통의 부작용도 줄었다.

시벡스트로는 지난해 FDA에서 원내 페렴-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적응증에 대해 신속한 심사와 우선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는 'QIDP'로 선정됐다. 이에 올 3월 미국 FDA 항생제 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허가 지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미국 FDA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지 단 6개월 만에 신약 허가 승인을 받았다.

시벡스트로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연 2000만달러(약 200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수입을 낼 전망이다. 동아에스티 측은 1조원에 달하는 미국 시장의 30%를 장악, 연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도 세우고 있다.

시벡스트로는 또한 올 2월 유럽의약품(EMA) 판매허가신청(MAA)의 예비 심사도 통과했다. 2015년 상반기에 허가 검토가 완료되면 유럽에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벡스트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2004년부터 시벡스트로 개발을 시작한 전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임상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아 2006년 전임상 시험을 완료했고, 2007년 1월 미국 제약사인 트리어스와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 미국과 글로벌 임상 개발을 함께 진행했다.
박성제 기자 psj@

업계 1위 '메디폼' 판매권 이전 습윤밴드 춘추전국시대 오나

10년 이상 습윤밴드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디폼'의 판매권 이전으로 올해 국내 제약사들의 습윤밴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신제품 출시, 마케팅 강화 등으로 메디폼 판매권 이전에 따른 습윤밴드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각오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습윤밴드의 대명사 메디폼의 판매권은 이달부터 일동제약에서 미국 제약사 먼디파마로 넘어갔다. 판매권을 넘긴 일동제약은 새로운 습윤밴드 제품인 '메디터치'의 판매를 최근 시작하면서 메디폼의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습윤밴드는 흉터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과 수분을 공급해 비정상적인 피부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제품이다. 특히 부종의 1위 제품인 메디폼은 동성그룹 계열인 바이오회사 제네월이 개발한 제품으로, 2001년부터 12년 동안 일동제약을 통해 판매돼왔다. 일동제약은 대대적인 메디폼 마케팅으로 습윤밴드 시장 규모를 키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판매권 이전으로 국내 습윤밴드 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정영 기자 thec98@



KT 'olleh CEO 우리카드' 최대 월 3만원 통신비 할인

KT는 23일 우리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매출 최대 3만원의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olleh CEO 우리카드'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소호(SOHO) 고객의 유무선 통신비 할인과 다양한 생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 KT

구글, 가정용 CCTV도 접수... 스마트홈 전략 본격화

사물인터넷 기술보유 '드롭캠' 인수

구글이 가정용 CCTV를 만드는 드롭캠을 5700억원에 인수하면서 구글의 스마트홈과 사물인터넷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글이 이번에 인수한 드롭캠은 2009년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집안·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해 양방향 음성교환, 실내 모니터링 등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

다. 또 집안의 에어컨을 미리 켜거나 전구를 조작하는 등의 사물인터넷 기술로 스마트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 때문에 구글의 이번 드롭캠 인수가 구글이 정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인 스마트홈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T업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스마트폰을 장악한 뒤, 이를 탑재한 TV·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하도록해 삼성과 애플 등을 제치고 스마트홈을 선점 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스마트홈이나 사물인터넷의 경우 외부에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집안에 설치된 기기들에 안드로이드를 선 탑재할 경우 경쟁사인 애플 등의 스마트폰으로는 제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태현 기자 119@

동영상 광고 플랫폼 판도 변화 '다윈', 구글 '트루뷰' 대항마로

곰·판도라·아프리카TV 등 제휴 월 방문자 1900만명 매출 770%↑

토종 동영상 광고 플랫폼 '다윈'의 시장 점령 속도가 거세지며 구글 '트루뷰'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독점하던 국내 동영상 광고 플랫폼 시장에 국내 업체인 인크로스가 다윈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동영상 소비가 늘어나면서 8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2012년 초 국내에 동영상 광고 플랫폼인 트루뷰(TrueView)를 선보였다.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광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5초가 지나고 나서 광고를 원치 않을 경우 분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너뛰기' 버튼을 제공한 점

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튜브 점유율이 지난해 70%까지 오르면서 국내 광고주들이 유튜브로 몰렸다. 이 시장에 인크로스가 지난해 4월 다윈을 출시하며 국내 동영상 미디어 업체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국내 동영상 매체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동월 대비 광고 매출이 770% 성장했다. 집행 광고 캠페인 수도 5배 이상 증가했다.

다윈은 국내 토종 동영상 매체인 곰TV, 판도라TV, 아프리카TV, 엠군과의 제휴를 시작으로 최근 지상파, 케이블, 종편 3사까지 제휴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현재 총 14개 매체에 광고가 노출되며, 월 순방문자(UV)가 1900만명 수준이다. 현재 구글의 월 순방문자는 2100만명 수준이다.

인크로스 관계자는 "모바일에서 동영상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ns00@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제품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록 삭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협력업체 체질강화로 SK도 성장·발전...협업성과 '쑥쑥'



SK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울산 문수 월드 컨벤션센터에서 SK이노베이션 등 6개 계열사의 울산 지역 협력업체 40여개가 참여하는 'SK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SK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SK그룹은 협력업체가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보고 협력업체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협력업체의 체질이 강해지고, 이 과정에서 SK그룹도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 SK그룹은 지난 2012년 5월 '동반성장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를 위해 기술·교육·자금 등 3대 분야를 지원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다.

SK종합화학의 '열교환기 국산화 개발 투자 및 R&D지원'을 받은 협력업체는 해당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뒤 공동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그 결과 국내 산업계에 약 257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 및 45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SK E&S는 코트라(KOTRA)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가스설비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해외 마케팅 컨설팅,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양측은 그 일환으로 국내 가스 분야 중소기업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 최대 국영 도시가스 기업인 베이징가스와 최대 민영 도시가스 기업인 차이나가스홀딩스 등을 방문해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가스산업 동반진출 차이나 로드쇼를 개최했다. SK그룹은 이 같은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경영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을 협력업체에 전해줌으로써 협력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SK그룹은 매월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산업 동향과 재무, 회계, 마케팅, 법무 등 기업경영의 골격이 되는 부분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위해 8주간 진행되는 미니 MBA(경영학석사) 과정인 '동반성장 MDP'도 1년에 두 차례 운영한다.

올해로 개강 8년째를 맞는 '동반성장 CEO 세미나'는 'SK 동반성장 아카데미'의 대표 과정이다. SK 동반성장 아카데미는 SK그룹이 국내 기업 최초로 마련한 중소기업 협력업체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그중 동반성장 CEO 세미나는 매년 총 10회에 걸쳐 진



SK E&S와 코트라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가스설비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가스분야 중소기업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차이나 로드쇼를 개최했다. 함정오(왼쪽) KOTRA 중국지역본부장과 이영우 SK E&S G&R부문장이 MOU 체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기술·교육·자금 3대분야 지원...성장 이끌어 중소인재 양성 'CEO 아카데미' 8년째 운영 SK종합화학은 257억 수입대체 효과 거둬

행된다. 현재까지 4251명의 협력사 CEO들이 수강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SK그룹은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동반성장 e-러닝'도 만들어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언제든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SK그룹은 협력업체의 고용도 돕고 있다. 지난해 11

월 울산에서는 SK이노베이션 등 6개 계열사의 울산지역 협력업체 40여개가 참여하는 'SK동반성장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열렸다. 이날 SK그룹은 울산·영남지역 대학생과 특성화 고교생 등 참가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용 컨설팅과 다양한 구직정보를 제공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평가 = SK그룹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면서 SK그룹이 국내 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SK그룹 계열사 중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 C&C 등 3개사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평가대상 대기업 집단 가운데 SK그룹이 가장 많은 최우수 등급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또 SK하이닉스와 SK건설은 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SK종합화학은 협력업체와의 기술개발, 특허출원, 해외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SK그룹은 동반성장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로, 그룹 단위로 체계화된 동반성장 지원 시스템을 들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동반성장 분야를 특화한 '동반성장 위원회'를 발족한 뒤 체계적인 동반성장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SK그룹의 전 계열사 CEO들이 '행복동반자 경영'을 선언한 이후, 동반성장 노력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경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만우 SK PR팀장(부사장은) "SK그룹이 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을 절대명제로 여기면서 협력업체와 SK그룹의 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n@

SK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동반자 경영"

SK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동반성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SK는 올해 동반성장 펀드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펀드는 SK가 협력업체 저금리 대출을 위해 지난 2009년 6월 조성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왔으며 지난해 3600억원에 이어 올해는 600억원을 더 늘리기로 한 것.

아울러 동반성장사모펀드(PEF)는 SK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협력업체와 장기적 관점에서 동반성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1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콘텔라, 동진세미캡, 성장E&C 등에 투자했으며, 올해도 중견·중소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SK는 지난 2005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행복 동

올해 동반성장펀드 4200억으로
협력업체 임직원 복리후생 확대

반자' 철학을 천명한 이래 동반성장을 기업경영의 근본 이념으로 삼아왔다. 최 회장은 당시 "협력업체가 행복하지 못하면 기업 성장이나 행복추구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표명했다. 이후 SK는 협력업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에 힘써왔으며,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이에 최 회장은 해마다 열리는 동반성장 CEO 세미나 개강식에 참여해왔으며, 올해 3월 서울 광장동

SK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열린 2014년도 개강식에는 김장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참석해 변함없는 동반성장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SK가 아직 중소기업이던 시절, 고(故) 최중현 회장은 21세기 초일류 기업이 되려면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뛰어난 부하직원 100명과 일한다면 회사는 100배 커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실제 SK종합화학 협력사인 대양산업 박해진 본부장은 "SK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 세미나를 통해 SK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게 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SK 각 계열사별로 협력사 임직원 복리후생



지난 3월 서울 광장동 SK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열린 2014년도 '동반성장 CEO 세미나' 개강식에서 김장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앞줄 왼쪽 5번째)이 협력업체 대표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에 특화된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SK C&C는 건강검진, 상조서비스 등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협력사 임직원과 공유해 큰 호응을 얻

었다. 올해는 SK텔레콤이 협력사 임직원 대상 가족 캠프 시행,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등 행복 스토리 창출에 앞장 설 계획이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피로가 몰려온다면...
베콤씨로
영양부터 챙기자!

내일을 바꾸는 온가족 영양제
베콤씨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쉽게 피로해져서 걱정인가? 몸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지치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두 알씩, 몸에 필요한 비타민B와 C에 항산화성분까지 채운 베콤씨로 영양균형도 잡고 피로도 잡으세요.

신용의 상징 - 비특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전화: 1248-0100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본사의 의약품,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는 다른 사용자에게 버겁니다.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 (수신자 요금부담)

현대엔지니어링, 중앙아시아서 90억달러 플랜트 대형수주 기회

박대통령 순방...우즈벡 40억달러·투르크 50억달러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향후 90억 달러(약 9조원)에 이르는 수주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현대엔지니어링과 LG상사 컨소시엄은 지난 20일 투르크 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 소재 대통령궁에서 '제이디 가스화학 플랜트(20억 달러)와 '가스액화 프로젝트(30억 달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50억 달러 규모다.

앞서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칸딕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총 사업비 40억 달러의 칸딕 가스전 개발 사업은 올해 3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주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현지 정부의 승인이 늦춰지면서 최종 계약이 미뤄져 왔다.

또한 19일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주도하는 쉬켄트 윤활기유 생산설비 건설 사업(9억 달러)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번 박 대통령의 자문외교에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주금액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내 건설업계가 중동에 치우었던 수주국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라는 신시장의 선점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단순 시공에 머물던 수준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자재 조달과 시공까지 맡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유증 나선 건설사... 허리 휘는 오너 일가

KCC 회사채 상환... 정상영 회장 62억·정몽열 대표 270억 출자 허창수 GS家 200억 주식담보대출... 신주 인수 '건설' 지분 늘려 김준기 동부회장은 뒷짐... 계열사 매각 통해 실탄 조달 '유증 성공'

건설사들이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오너들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경기불황에 영업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올해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상장사를 중심으로 유증증자를 실시하고 있다.

KCC건설과 GS건설의 경우 오너들이 직접 유증에 참여하며 자금조달에 나섰다. 전직 본인들은 자금확보에 등골이 휘는 지경이다.

KCC건설 유증에는 정상영 명예회장과 정몽열 대표 등 오너 일가가 참여한다. KCC건설은 지난 18-19일 이틀간 1330억 6800만원 규모의 유증을 실시했다.

이번 유증증자는 오는 10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1400억원 규모의 회사채(제13회무보증공모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KCC건설은 2014년 3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가 984억7603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주주인 KCC가 403억3000만원(562만주), 정 대표 270억원(387만주), 정 명예회장이 62억원(89만주)을 각각 출자하기로 했다.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GS그룹 오너 일가는

GS건설 유증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억원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허창수 GS그룹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허병수 GS건설 부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대표는 지난 5월 28일 GS건설 주식을 제공하고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GS건설 주식은 모두 98만8100주로 28일 종가를 대입하면 약 359억원에 해당한다. 금융권에서 주식담보대출의 인정 비율이 통상 60-70%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조달한 금액은 215억~251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허 회장 일가는 지난 2-3일 있었던 GS건설 유증증자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창수 회장 536억원 △허진수 부회장 263억원 △허병수 부회장 164억원 △허태수 대표 103억원을 들여 신주를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오너들이 유증에 참여하지 않고 계열사 매각 등으로 정상화에 나선 업체도 있다.



동부건설은 유증증자에 성공했지만 동부그룹 오너 일가의 참여는 없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최근 동부건설과 동부제철 유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회장이 사재를 털어 계열사 경영 정상화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 친인척, 동부CNI를 합쳐 70%에 가까운 지분율을 확보한 동부건설의 유증이 주주배정이 아닌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김 회장 일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동부건설은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유증을 지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다른 방향으로 사재를 출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그룹은 매물로 내놓은 10여개의 자산

중 일부를 매각했고 계열사 직원들을 통한 유증에도 성공해 현재 5000억원 상당의 자금조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부건설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한 점 등이 '욕의 티'로 남아 있다.

동부건설의 1년 내 만기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은 6200억원이 넘는다. 동부건설은 지난 3월 362억원 규모의 유증을 확정했다. 또한 일반공모 유증이 청약경쟁률 0.98대 1로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55억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동성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동부그룹이 중요 자산을 매각한 후 그룹 전반의 국내외 영업력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변수"라고 설명했다. 박태진 기자 tjiippo@

금융투자협회 심사제 제 14-01297호(2014.03.12 ~ 2014.12.31) www.iprovest.com

KYOBO 교보증권

모바일 주식거래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마음껏 누리세요!

SMART K

주

음껏~ 누리자!

이벤트 기간 2014.2.10 ~ 2014.12.31.

누림 하나

1. 매 2주간 10억원 이상 거래금액 상위200명 10만원 지급

2. 월간 누적 거래금액 상위 5명 50만원 상품권 지급

* 기존이벤트 참가자는 참여 불가
* 월간 누적 상위는 해당월초부터 말일까지 집계하여 지급
* SMART K로 매매한 주식 거래금액만 인정
* 발표는 해당회차 종료 후 SMART K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누림 둘

은행연계 개설계좌 거래시 0.014%의 착한 주식거래 수수료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누림 셋

고객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4.95%의 저렴한 신용융자 이자율

용자사용기간	30일 이내	31 ~ 60일	61 ~ 90일	91 ~ 180일	연체이자율
이자율	4.95%	5.0%	5.5%	9.0%	12%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 신용 거래이역시 신용거래 약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 스마트어워드 대상 금융/증권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최고 권위의 우수 모바일 앱을 선정하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 [제3회 스마트어워드] 금융/증권서비스부문에선 전문가들로부터 최고 앱으로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투자유의사항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연락처(휴대폰)불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이벤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목! 이곳 거제 경남 아너스빌

삼성중공업 인근... 3.3㎡당 680만원 분양가 저렴

전용 59·74·84㎡ 구성 1030가구 공급
분양률 97% 기록 33가구 선착순 모집



'거제 경남 아너스빌' 공사 현장.

거제는 전통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제 분양 시장 역시 활기를 띠고 있다. 여기에 중견 건설사인 경남기업이 '아너스빌' 브랜드를 앞세워 거제에 분양 출시표를 던졌다.

경남기업은 시공 중인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거제 경남아너스빌'의 분양홍보관을 지난 13일 개관하고 일반분양을 진행중이다.

이 아파트는 경상남도 거제시 사들면 사곡리 일대 위치하며 지하2층, 지상 17~24층, 총 14개동으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기준 △59㎡ 213가구 △74㎡ 449가구 △84㎡ 368가구 등 총 1030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30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홍보관을 오픈할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1주일만에 대부분 분양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거제 지역에 첫 분양인 만큼 최고의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조합원 물량(724가구)을 포함해 총 997가구가 분양계약이 체결돼 전체 분양율이 97%에 이르러 있으며 현재 잔여분(33가구)을 선착순으로 분양중이다. 이처럼 '거제 경남아너스빌'이 짧은 시간내에 분양을 마친 것은 합리적인 분양가 때문이다. 현재 거제시 옥포동에 분양한 '편한세상 옥포'는 3.3㎡당 800만원대 초반의 분양가였으며 2012년 분양한 '거제 마린 푸르지오'는 3.3㎡당 평균 730만원대로 분양을 진행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6/23 (월)	계약	경기	하남시	만발동	하남미사A7(공공분양) (~6/26)	1600-1004
	접수	전북	전주시	덕진동2가	전주하가시랑으로부영(임대) (~6/24)	0631244-2122~3
6/24 (화)	계약	경기	화성시	반송동	화성동탄5-1BL(공공임대) 1,2,3순위 (~6/26)	031)831-2431
	접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A7(국민임대) (~6/26)	1600-1004
6/25 (수)	계약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A7(국민임대) (~6/26)	1600-1004
	접수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조양NH천년나무3단지(국민임대) (~6/26)	1600-1004
6/26 (목)	계약	서울	노원구	월계동	꿈예술포럼 1,2순위	02)971-7770
	접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파크자이(상도10구역) 1,2순위	1661-3289
6/27 (금)	계약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효성해링턴타워퍼스트 (A) (~6/27)	1600-0558
	접수	경기	광주시	역동	광주역e편한세상	031)8017-0048

※(주1) (A) 오피스빌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붉은 글씨로 표시
※자료: 부동산114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7개 사업장 총 9129 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대구는 361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40%가 공급된다. 예교폴리스동화아이위시 3차와 '대구테크노폴리스제일풍경채' 등 3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지가 모두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구성되어 물량이 풍성하다.

수도권은 △경기 하남 '위례효성해링턴타워퍼스트' △서울 노원 '꿈예술포럼(재건축) △서울 동작 '상도파크자이(재개발) 등 2127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제주 서귀포 '제주서귀포혁신도시1'(공공임대) △전남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3'(국민임대) △경북 김천 '김천혁신중흥S클래스프라자' 등 7002가구가 청약자들이 맞이한다.

강영관 기자 kwan@

아베의 도발...흔들리는 美 동북아 리더십

위안부 동원·아시아침략 부인 '고노담화' 검증 당혹 주요 외신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 악영향"

미국은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동북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일본이 무라야마 전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의 사과를 계승하는 것이 인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장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아베 신조 정권이 고노담화를 지지한다는 관방장관의 성명에 미국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고노담화를 검증했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과거에서 벗어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유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게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벵크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인 행보를 지속하면서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지난 17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끔찍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요 외신은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USA투데이는 아베 신조 내각이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동안 일본 우익 세력이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정부의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해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역시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은 정확성 여부가 아닌 작성 과정을 살핀 것이라면서 사과 문구가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는 발표가 한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은 앞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통신은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노담화 검증 발표가 한·일 간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보수파들의 고노담화 철회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

글로벌 영스타 ⑤ 로렌스 호

리조트 사업 '잭팟' 터뜨린 마카오 카지노제국 황태자



로렌스 호 멜코그룹 CEO

로렌스 호(37)는 마카오 카지노 제국의 황태자와 같은 존재다. 지난 2001년 중국 정부가 해외자본의 마카오 카지노 진출을 허용하기 전까지 무려 40여 년간 카지노산업을 독점하며 마카오 경제를 좌우했던 스탠리 호 SJM홀딩스의 장남이기 때문이다.

로렌스 호는 현재 홍콩증시 상장 지주회사인 멜코그룹과 호주 억만장자 제임스 팩커와 합작해 설립한 카지노·리조트업체 멜코크라운엔터테인먼트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2014년 40세 이하 억만장자' 31명 중 30억 달러(약 3조534억원) 재산으로 18위에 올랐다.

호 회장은 단순히 아버지의 후광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1년 적자에 허덕이던 멜코인태너셔널디벨롭먼트를 완전 인수해 굴지의 레저·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등 경영 수완을 발휘했다.

멜코는 지난 1910년 설립된 유서 깊은 기업이나 호 회장 인수 전에는 계속되는 부진에 흔들리고 있었다. 호 회장은 마카오 인근 타이파에 첫 카지노호텔을 세우고 아시아 지역 카지노사업 확대를 위해 팩커와 손을 잡는 등 레저·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을 실천에 옮겨 회사를 회생시켰다.

팩커와 손잡고 세운 멜코그룹의 주력기업인 멜코크라운은 지난해 매출이 50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5% 늘었고 수익은 6억3750만 달러로 2012년의 4억1720만 달러에서 증가했다.

회사는 지난해 221억 달러 시가총액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50대

기업'에 들기도 했다.

멜코크라운은 2009년 마카오에 카지노 리조트 시티오브드림스를 세웠으며 2015년 개장을 목표로 테마스튜디오를 짓고 있다.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필리핀에 짓고 있는 시티오브드림스마닐라는 연내 개장할 예정이다.

또 로렌스 호 회장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카지노 리조트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북부와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에 카지노를 세우며 베이징과 하얼빈 등의 고객을 공략하겠다는 액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50대

기업'에 들기도 했다.

멜코크라운은 2009년 마카오에 카지노 리조트 시티오브드림스를 세웠으며 2015년 개장을 목표로 테마스튜디오를 짓고 있다.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필리핀에 짓고 있는 시티오브드림스마닐라는 연내 개장할 예정이다.

또 로렌스 호 회장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카지노 리조트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북부와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에 카지노를 세우며 베이징과 하얼빈 등의 고객을 공략하겠다는 액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50대

이라크 반군 서부국경 장악... 유가 9개월 만에 최고

급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라크·라반트 이슬람 국가(ISIL)'가 주도하는 수니파 반군이 서부 국경지대를 장악하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칠 전망이다.

ISIL이 주도하는 이라크 수니파 반군이 21일(현지시간) 밤 요르단 국경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루트바를 점령했다고 22일 AP통신이 보도했다. 가장 저항이 심한 지역 중 한 곳인 루트바를 점령한 반군은 요르단과 연결된 주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도 제어할 수 있게 됐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 20일 점령한 알카임과 라와, 아나를 포함한 반군은 안바르주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잇따라 점령하고 있다. 특히 반군은 시리아, 요르단과의 국경검문소가 있는 도시들을 장악해 사실상 국경을 통제하게 됐다. 이에 반군은 시리아로부터 물자와 장비

요르단·시리아 검문소 점령
군사물자·장비 반입 쉬워져
WTI 배럴당 107.30달러
케리, 중동·유럽 순방 논의

를 들여오거나 또는 시리아 내 반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986년 완공된 하티다 댐도 반군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 100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가 있는 이 댐이 파괴되면 이라크 전체 전력망에 영향을 주고 홍수도 일킬 수 있다.

이라크 불안에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지난 20일 7월 인도분 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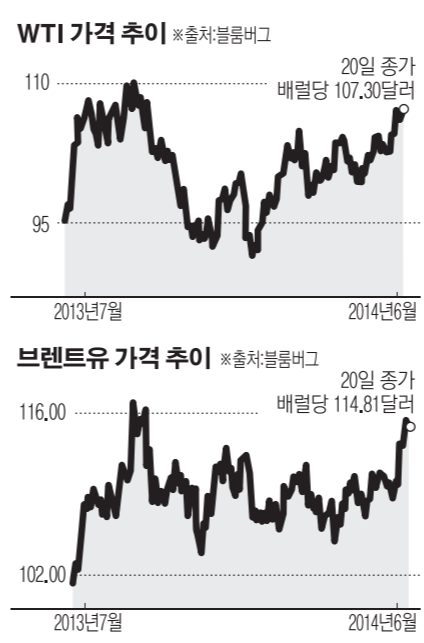
텍사스산 원유(WTI)는 0.83달러(0.78%) 오른 배럴당 107.30달러로 마감해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영국 런던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도 114.81달러로 9개월래 최고치에 근접했다.

중동과 유럽 순방에 나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 지난 8일 취임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 요르단 안만과 벨기에 브뤼셀·프랑스 파리를 차례로 방문해 이라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의 이라크 내정 개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아파인 누리 알말리키 총리의 퇴진을 사실상 요구하는 미국 내 일각의 목소리를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알스탐 인수전 GE 최종 승리

지멘스·미쓰비시 연합군 제치고 佛정부 지분 20% 매입 조건 타결

프랑스 국민기업 알스탐을 둘러싼 치열한 인수전에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독일의 지멘스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연합군을 제치고 승리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알스탐의 대주주인 프랑스 통신회사 부이그가 프랑스 정부에 알스탐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고속열차 '테제베(TGV)' 생산업체로 유명한 알스탐은 프랑스의 자존심으로 통하는 기업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GE의 알스탐 인수 제안을 거절했으나 국가 이익 보호 차원에서 알스탐 지분 20%를 손에 넣는 조건으로 GE 제안을 받아들였다.

알스탐 이사회는 전날 에너지 사업부문에 대한 GE의 인수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GE는 앞서 알스탐에 170억 달러(약 17조3400억원)에 에너지 사업부문 인수를 제안했다.

GE의 알스탐 인수는 이제 최종타결까지 주주들과 근로자 대표의 승인 등 몇 단계의 과정만이 남게 됐다. 이들이 승인하면 내년 중엔 인수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GE가 알스탐 인수 이후 고용 승계는 물론 1000명을 신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가 최종 완료되면 GE는 알스탐의 석탄 및 가스 발전 터빈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은 물론 발전량, 재생에너지, 원자력 터빈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알스탐과 지분 50대 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브라질 서부 산사태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나탈의 서쪽마을이 산사태 때문에 붕괴한 가족들의 잔해가 쌓여 있다. 16일 나탈에 발생한 홍수로 산사태가 발생, 약 25개의 가족이 붕괴하고 도로가 손상돼 50~60가구가 대피했다. 나탈/EPA연합뉴스

'동남아' 모바일메시징 새 격전지로 절반 이하 피쳐폰 사용... 라인·위챗 외 비주류간 경쟁 치열

동남아시아가 글로벌 모바일 메시징 응용프로그램(앱)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동남아시아는 아직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다. 6억명 동남아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피쳐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앱에 대한 선호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리서처업체 닐슨의 분석에 따르면 태국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절반 가량이 스마트

폰을 쓰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3%, 필리핀은 15%에 불과해 중국의 71%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메시징 앱을 쓰는 것도 동남아시아의 특징이다. 시장조사업체 디바이스리서치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사용자가 평균 4.2개의 메시징 앱을 자신의 폰에 저장해 놓았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에서 메시징앱은 대부분 무

글로벌 리포트

푸틴, 우크라이나 겨냥 전투태세 명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페트 포르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안을 지지한다면서도 러시아 자국군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착수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우크라이나 휴전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휴전 선언이 '최후통첩이 대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평화안이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분리주의 무장세력에 대해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포르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0일 분리주의 세력에 무장을 해제할 시간을 주겠다고 7일간의 일방적 임시 휴전안에 서명하면서 동부 분리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푸틴은 같은 날 러시아 중부 지역 부대에 '완전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또 공수부대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명령했다. 이는 이날 발표한 성명과 대조적인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의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기업 부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유럽기업 부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 비용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앞다투어 돈을 빌리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올해 1분기 레버리지 비율(leverage multiple)이라고 불리는 기업 수익 대비 부채비율은 5.1배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0년 평균치 4.8배를 웃도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유럽기업 사이에서 이같이 부채 비중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저금리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달 초 ECB는 기준금리를 0.25%에서 0.15%로 인하하고 초단기 수신금리인 ECB 예금금리를 0%에서 -0.10%로 인하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ECB의 금리인하 결정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때문에 대출 수요가 커져 대출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 경기선행지수 또 100 넘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 경기선행지수(CLI)가 15개월 연속 100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CLI는 지난해 2월 100.08로 100을 넘긴 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4월(101.01)까

와병중 총수일가 구속... '역차별' 지적

‘뇌경색’ 이선에 前 태광상무·‘신장이식’ 이재현 CJ회장 등 구속정지 안돼... ‘특별대우 바라지 않지만 잣대 너무 엄격’

와병 중인 대기업 총수의 법적 구속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치매나 장기 이식수술 등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해가는 와병에도 사법 당국이 ‘총수’라는 잣대를 세워 구속을 고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신중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회사돈 400억 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에 대한 서울구치소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단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민간위원회 검찰 측이 참여한 형

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고령인 데다가 최근 뇌경색(치매)으로 병세가 악화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법조계와 재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상무는 현재 87세의 나이에 중풍과 치매가 심해, 스스로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무는 지난 3월 19일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고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이 전 상무는 수형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결

여된 고도치매로 발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의 전문의는 이 전 상무의 상태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주위의 전적인 수발이 필요로 되는 상태라, 신장기능장애 및 기타 대사장애에 의해 인지 기능장애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중환 병원 입원 치료가 필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 다른 대기업 총수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재신청을 한 상황이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은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 중이던 같은 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두 번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지만 올해 4월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건강상태가 악화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를 보여

서울구치소와 연계된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후 지난 2일 서울 대법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아왔다.

이 회장의 변호인들은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쩔 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까지 무리하게 집행을 필요로 있는지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건강 회복 후 형기간을 채워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배려나 특별대우는 바라지도 않을 정도로 옛말이 됐다”며 “그렇다고 일반인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철규·조남호 기자 yoonck@

박상은 의원 정기적으로 후원한 기업들, 이유는 ‘해운법 개정 주도’ 영향력 막강... 줄대기 의혹

해양연맹 부총재 등 업계 대변자 檢, 불법정치자금·뇌물 가능성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건넨 기업들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기업들이 왜 박 의원에 후원금을 줬는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사법기관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뒤 각종 인허가와 은행

대출 등에서 편의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기업 10여곳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 가운데 수 곳은 법적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박 의원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 대가성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박 의원을 후원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의 장남 집에서 나온 6억원의 현금 통치가 지역 소재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이거나 뇌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선 박 의원이 인천지역에서 18대와 19대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는 동안 대한민국해양연맹 부총재와 바다경제국회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해양수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해운 관련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도 박 의원의 선주협회 지원으로 수차례 의우성 출장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해운업계 숙원을 반영한 해운법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이 중 해운 인

허가와 관련해 박 의원이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앞서 검찰은 해운업계의 전반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천 계약구 모 건설업체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14일에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한국학술연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돈에 대해서는 결백하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수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특검거법상 뇌물 혐의로 범정에 서게 된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이달 들어 안전사고 3번 아시아나항공 ‘빨간불’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달 들어 두 번째 긴급 회항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는 6월 들어 서민 안전 이상에 따른 긴급 회항을 포함, 세 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1일 오후 인천에서 LA로 출발한 OZ 202편 B747 여객기가 이륙 후 엔진 경고등이 켜져 긴급 정비를 위해 밤 11시에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항공사 측은 하네다공항에 대해 여객기를 투입해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351명을 옮겨 태우고 LA까지 운항했다. 승객들은 여객기를 갈아타느라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의 연이은 사고 발생에 안전 관리 체계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아시아나가 작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 문제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무장 탈영병 경계 강화 21일 오후 동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초병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 소총을 난사한 뒤 무장 탈영을 하는 사고가 발생해 강원도 고성 일대에 진동해 '하늘'이 발령된 22일 오전, 사건 현장에서 인접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을 대대참거리 검문소에서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군 당국은 무장 탈영한 초병이 아직 민통선 내 부대 인근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추적 중이며, 주요 도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 만일에 있을 도주에 대비하고 있다.

해군 합정 검사 뒷돈... 한국선급 '검은 비리'

대형업체서 1천만원... 직원 영장 사인 윤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3년 8월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해군 합정을 검사하면서 선박검사 대행업체에 현금 1000만 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합정은 일반 선박과 마찬가지로 새로 건조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받는다.

한국선급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해군 합정을 검사하는데 대형

업체에 이 업무를 맡기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검사원에게 돈을 준 대형업체는 해군 합정의 선체 두께 측정 등 선체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대행업체의 업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군합정에 대한 선박검사를 감독해야 할 검사원이 돈을 요구해 받아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는 한국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업체 간의 유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해군합정의 검사 비리는 해군 장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방력 약화로 국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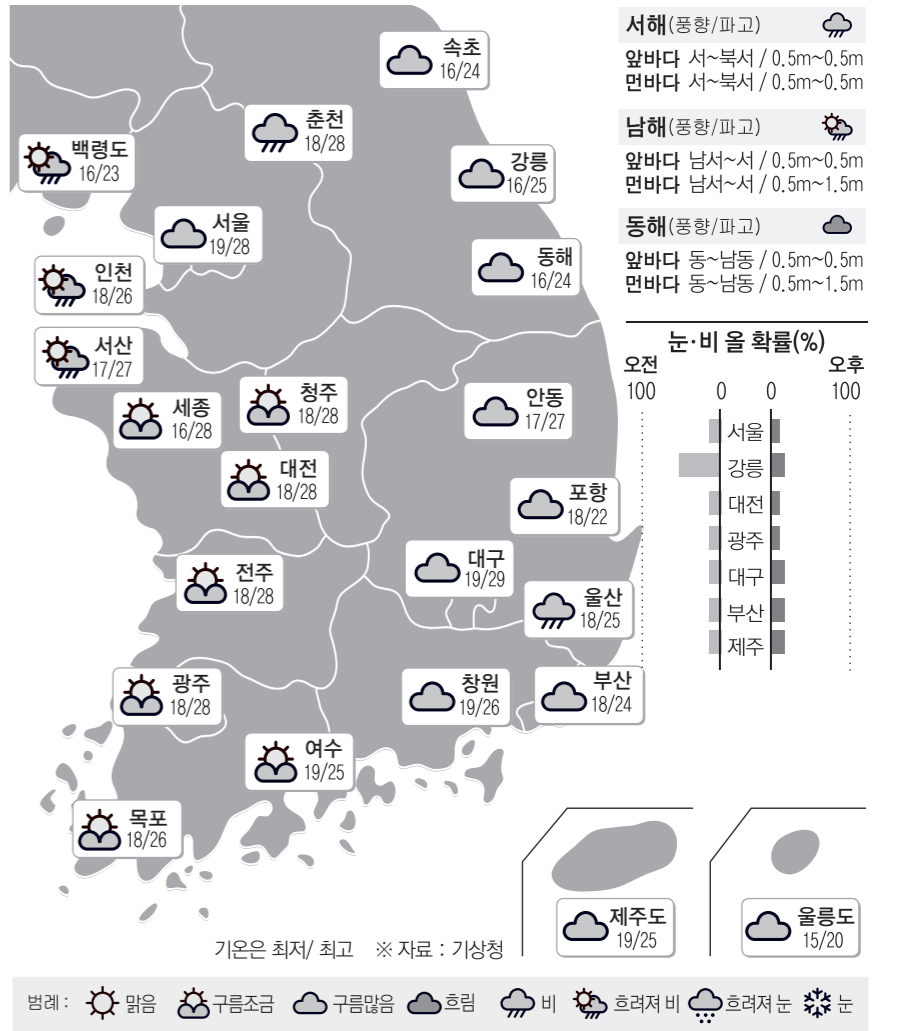
이 밖에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저가의 선박 분포처리장치를 안전기능이 포괄된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품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관계기관의 검증을 통과한 혐의로 분포처리장치 업체 A사 대표 박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내일의 날씨

☀ 해돋이 05:12 ☁ 해질 19:57 🌙 달돋이 02:51 달정지 17:04

서해상의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만났고 강원동해안은 새벽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었다.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일부 내륙에는 낮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었다. 또 충청남북도에서는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9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유명언 부인 이어 동생 체포... 행방 추궁

檢, 친인척 7번째 ‘암박카드’로

검찰이 유명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동생까지 체포하며 암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62)씨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병호씨 자택에서 체포했다. 병호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경이 추적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병호씨는 유 전 회장의 장녀 삼녀(48)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일가의 계열사 사이소에서 감사를 지내면서 컨설팅비용과 사전작품 구매

등을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에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게 병호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유 전 회장 및 장남 대권(44)씨 등에게 회사 돈을 몰아준 경위와 유 전 회장 부자의 소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검거팀은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를 긴급체포했다.

병호씨와 권씨가 체포되면서 지금까지 체포되거나 구속된 유 전 회장의 친·인척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유혜은 기자 euna@

금융권 하반기 채용 인원 줄여 ‘별따기’

아예 뽑지않는 곳도 ‘수두룩’

올 하반기 금융권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한화생명 등 채용 규모가 큰 은행과 생보사들은 하반기 공채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일 방침이다.

금융권 하반기 채용은 내달 롯데손해보험, 8월 금융감독원·예보·국민은행, 9월 한국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대구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하반기 5급 직원 180

명을 뽑은 농협은행은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5급 정규직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한 한화생명도 하반기 채용 규모도 지난해(34명)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는 곳도 수두룩하다.

올해 상반기 20명을 채용한 PCA생명은 하반기에는 임시지원을 받지 않을 계획이고 하이카다이렉트와 AXA손해보험은 하반기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각각 70명과 31명을 채용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올 하반기 공채에는 채용이 불투명할 상태다.

김경아 기자 kakim@

DHL코리아, 청구상담파트 직원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연봉 1700만원부터 주5일근무 (주)DHL코리아가 청구상담파트 직원을 모집한다.

담당 업무는 △DHL운입 관련 청구서 재발행 △청구서 관련 고객문의 응대 △판권 부서(영업·CS부서)와 커뮤니케이션 △DHL시스템 사용 등이다.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되며 컴퓨터활용능력2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전화 인터뷰가 포함된 1차 서류전형을 거쳐 2차 실무진면접, 3차 인턴면접을 통과하면 채용이 확정된다. 회사는 6개월 계약근무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연봉은 1700만원 이상이며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교육비, 자녀학자금, 주택자금 지원, 직면대출 등이 제공된다. 문의 02-710-8135 유혜은 기자 euna@

모집요강	
모집직종	고객상담원
직무내용	인바운드 상담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 정함 있는 근로계약 6개월
경력조건	1년 이상
학력	고졸이상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청년층

미셀 위 US오픈 우승... 첫 '메이저 킴'

세계랭킹 1위 루이스 2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라 유소연·최나연·박인비 이어 4년 연속 한국계 챔피언

재미동포 미셀 위(25·나이키골프)가 제69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325만 달러·33억8500만원)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미셀 위는 23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골프장 2번 코스(파70·664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1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이븐파 70타를 기록했다.

이로써 미셀 위는 4라운드 합계 2언더파 278타로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29·미국·이븐파 280타)를 2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은 72만 달러(7억3400만원)다.

1번홀(파4) 보기로 불안한 출발을 보인 미셀 위는 2번홀(파4)을 파로 막으며 안정을 찾았고, 이후 전반 모든 홀을 파로 장식하며 전반을 1오버파로 마쳤다. 후반 첫 번째 홀인 10번홀(파5)에서는 이글을 기록, 단숨에 언더파 스코어를 만들었다. 16번홀(파4)에서 통탄의 더블보

기를 범하며 단독선두 자리를 내주는 듯했지만 17번홀(파3)에서 한타를 줄이며 이븐파로 돌아와 우승하는 데 성공했다.

미셀 위는 2005년 10월 프로로 전향한 이래 9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는 감격을 누렸다. 지난 4월 롯데 챔피언십 이후 2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한 미셀 위는 올 시즌 2승으로 다승 부문에서도 스테이시 루이스, 캐리 웹(40·호주), 제시카 코르다(21·미국), 안나 노르드크비스트(27·스웨덴) 등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

특히 미셀 위는 2011년 유소연(24·하남용그룹), 2012년 최나연(27·SK텔레콤), 2013년 박인비(26·KB금융그룹)에 이어 4년 연속 한국인(계) US여자오픈 챔피언이 됐다.

미셀 위는 지난 2005년 15세의 나이로 LPGA에 입회하면서 놀라운 활약으로 '천재 골프 소녀'라는 별칭을 얻었다. 미셀 위는 어린 나이에도 성인 선수들 못지않은 장타력을 과시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그가 세계 1인자가 될 것 등의



미셀 위가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다. 2005년 프로데뷔 후 9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때 독특한 슬럼프를 겪으며 3년 동안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골프에 대한 열정과 피나는 노력으로 슬럼프를 극복, 올 시즌 2승째를 장식했다. AP뉴시스

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학업과 투어 생활 병행, 그리고 남자 대회 도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때이른 슬럼프를 겪게 된다. 실상가상으로 부상까지 겹치면서 부진을 거듭했다. 2010년 이후 3년 여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미셀 위는 이제 기억에서 잊혀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집념은 남달랐다. 상체를 지면과 수영이 될 만큼 속이는 독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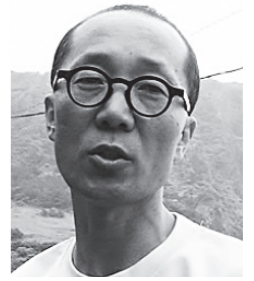
한 퍼팅 스타일을 개발하며 자신만의 리듬감을 찾았다. 주변에서는 미셀 위의 퍼팅 자세를 두고 얼갈이라 놀리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집념은 결실로 나타났다.

미셀 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민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고향 하와이에서 우승한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감격스러운 순간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극한스포츠 개척자 박기섭씨 “후배들 도전의 길 만들고파”

국내에 철인3종경기 첫 도입 10년 전 철린지키퍼시리즈 창설 참가자 적어도 명맥유지 행복



경기인 철린지키퍼시리즈를 만들었다. 철린지키퍼시리즈는 그동안 모두 19명이 참가해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 김연수씨

한국에 처음 철인3종 경기를 도입하고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 대회인 철린지키퍼시리즈를 창설한 박기섭(48·사진)씨가 주목 받고 있다. 10년째 극한스포츠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에 열린 제6회 철린지키퍼시리즈 철인3종 경기는 참가자가 3명에 지나지 않다. 하지만 박씨는 대회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행복해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철린지키퍼시리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24시간 달리기, 철인3종경기, 100km 아웃리거 카누, 100km 스키 크로스컨트리 등 4종목을 모두 완주하는 선수에게 철인 칭호를 부여하고 각 종목을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이색 스포츠다. 오직 한국에서만 열린다.

박씨는 앞서 한국철인3종 경기대회(1991년), 24시간 달리기(2000년), 100km 아웃리거 카누(2003년)를 한국에 처음 들여오는데 이어 지난 2005년에 이들 3개 경기에 100km 스키 크로스컨트리를 더해 새로운 스포츠

를 비롯한 6명의 철인(원주)을 배출했다. 박씨는 “외국엔 우리나라에 없는 다양한 대회들이 많다. 관심을 두고 한국에 각 경기를 하나씩 들여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절별로 나눠졌다. 내가 들여오면 다른 대회지만 정말 환상적인 경기가 됐다”고 말했다.

꾸준히 연습을 거듭해 온 박씨는 1987년 철인3종 경기 초창기 대회였던 3종경기 대회(드라이애슬론 올림피코스)에 참가해 초대 우승자가 됐다.

그는 “왜 굳이 어려운 길, 힘든 스포츠를 고집하느냐는 물음에 “극한 스포츠 기획자로서 새로운 대회를 만들어 주축하고 다른 후배들이 더 다양한 극한 스포츠에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수로서의 삶을 꽃피우지 못한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태진 기자 tjipoo@

이흥렬 에세이집 '60초' 계약금 1000만원 기부

개그맨 이흥렬(사진)이 출간한 에세이집 '60초'의 출판계약금 1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흥렬이 지난 19일 '60초'의 북콘서트를 열면서 출판계약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흥렬은 “지금은 촛불이지만 우리 시대가 그러했듯 전기 들어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내 입이 살아있는 한 기부특강을 지속하며 나눔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ipoo@



살만 루슈디, '펜 핀터싱' 수상

인도 출신의 영국 소설가 살만 루슈디(사진)가 권위 있는 문학상인 '펜 핀터싱' 상의 올해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선정위원회는 루슈디의 뛰어난 문학적 성취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선정 이유로 꼽았다. 1988년 발표한 '악마의 시'가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란 통치자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은둔 생활을 해 온 루슈디는 “문학적 재능과 사회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핀터의 이름을 딴 상을 받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채찬병 연세대학교 교수

'IT 젊은 공학자상' 수상

연세대학교 채찬병(사진)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가 'IT 젊은 공학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와 대한전자공학회(IEIE)가 공동 주관하고 해동과학문화재단 후원으로 매년 연구 업적이 뛰어난 젊은 연구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채 교수는 미국 뉴저지 벨 연구소에서 5세대 통신 기술에 대해 연구했다. 이후 연세대에서 새로운 융합네트워크 분야 개척과 5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유혜은 기자 euna@



美 '인신매매 척결 영웅'에 첫 한국인

고명진 '다시 함께' 센터장 특별부서 설치 1만여명 상담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 발표와 동시에 선정하는 인신매매 척결 '영웅(hero)'에 한국인을 처음으로 선정했다.

한국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단체인 서울시 '다시 함께 센터'의 고명진(44·여) 센터장이 지난 20일 발표된 올해 보고서에서 다른 국가 출신 9명과 함께 영웅으로 소개됐다.

지난 10여 년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자활을 지원한 고 센터장은 상

담과 법률 및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고 센터장은 지적 줄 모르는 활동가”라고 소개하며 “10대 가출 소녀들이 매춘과 성매매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도록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부서를 센터 내 설치했다”고 전했다.

고 센터장은 지난해 부서를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대면·전화·온라인 등을 통해 약 1만여명에게 상담을 제공했다.

한편 한국은 12년 연속 인신매매 척결 노력에서 1등급을 유지했으나, 북한은 2003년 이후 12년째 최하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 발표와 동시에 선정하는 인신매매 척결 '영웅'에 한국인 고명진 센터장이 선정됐다. 존 케리(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고명진(오른쪽) 센터장에게 시상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국 국무부

구자균 LS산전 회장 '신뢰성大賞'

공공부문 노영민 국회의원

LS산전 구자균(사진) 부회장이 한국신뢰성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LS산전은 지난 20일 한국신뢰성학회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 오키토크에서 열린 '제2회 한국신뢰성대상'에서 구 부회장이 제조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구 부회장 이외에 공공부문에서는 노영민 의원이, 서비스업부문에서는 한국전력

공사가 각각 수상자로 뽑혔다.

신뢰성학회는 지난 1999년에 설립된 단체로 학계와 전기·전자, 정밀기계 등의 다양한 분야 산업체와 연구

소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신뢰성 이론과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 부회장은 LS산전을 이끌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 및 자동차 분야 기술 신뢰성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해외시장을 공략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구 부회장은 LS산전 CEO로 취임한 이후 R&D 투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전력 및 자동차 솔루션은 물론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부품, 태양광,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그린 비즈니스 분야 경쟁력을 집중 육성해왔다.

한편, 신뢰성학회는 지난해 첫 시상식을 열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이사, LG CNS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제3회 '광동 암학술상'에

장윤구·김호근·임석아 교수

대한암학회와 광동제약이 공동 제정한 제3회 광동 암학술상 수상자로 장윤구 울산대 교수, 김호근 연세대 교수, 임석아 서울대 교수가 선정됐다.

대한암학회는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0회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장윤구 교수, 김호근 교수, 임석아 교수에게 제3회 광동 암학술상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광동 암학술상은 수준 높은 SCI 저널 혹은 분야별 SCI 논문의 비율이 높은 학회지에 대한암학회지를 인용한 논문을 발표한 연



장윤구 울산대 교수



김호근 연세대 교수



임석아 서울대 교수

구자, 그리고 다수의 SCI 저널에 대한암학회지를 인용해 발표한 연구자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암학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유혜은 기자 euna@

김준규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화우행

법무법인 화우가 김준규(59·사법연수원 11기·사진) 전 검찰총장을 변호사로 영입했다.

김 전 총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 형사법 과정과 컬럼비아대 로스쿨 통상법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주미대사와 법무협력관과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등을 지내며 검찰 내 대표적인 '국제통'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2008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검사협회(IAP) 아시아지역 대표 부회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등을 거치며 제37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검찰총장 시절 '외국공직자 비리, 지역토



착 비리, 사이버 언론사법, 금융비리, 교육비리'를 검찰이 최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며 '대광그룹, C&G, 오리온그룹 비자금 수사'와 '부

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각종 금융비리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2011년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케이에이시엔이라는 법률사무소를 열고 개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화우는 김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손꼽히는 '국제통'이었던 만큼 지난달 새로 출범한 국제무역통상팀에서도 크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태진 기자 tjipoo@

인사

-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전보 △홍보실장 우영만 △자금지원실장 김병록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 우재학 ◊지역본부장 △인천지역본부장 김창구 △전북지역본부장 박관순 △경남지역본부장 직무대리 대경봉
-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전문본부장 육인수 △천문전문본부장 김중수 △우주과학본부장 최철성 △대형망원경사업단장 박병근 △이론천문연구센터장 양홍진 △우주위험감시센터장 박장현
- ◆순해보험협회 ◊승진 △공익사업부장 김성 △보장사업부장 서영종 △기획조

정부 정책연구팀장 김원신 △홍보부 공시팀장 방병호 △보장사업부 업무팀장 김성완 △구상금분쟁심의팀장 안성준 ◊전보

△중양지역본부장 김병상 △수도권지역본부장 김양식 △수도권지역본부장 김현석 △기획조정부 기획총괄팀장 방태진 △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장 최중수 △공익사업부 보험조사팀장 황원준 △자율관리부 판매제도팀장 신종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김성근 △자연과학대 교무부부장 이준호 △자연과학대 학생부부장 전현수

◆부산MBC △보도국 시사정보팀장 정은주 △보도국 정책담당장 정세민

◆OBS △보도국 수원총국장 김도영

부음

- ▲김중경(부산 예인치과병원 원장)씨 부친상, 박홍일(전 KBS 해설위원)·조현문(사업)·윤현두(전 수도권병원 원장)씨 장인상 =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109호, 발인 24일 오전 6시, 장지 대전 국립현충원, 051-711-4400
- ▲평기봉(영등포소방서 소방위)·기호(KTB투자증권 재무관리팀 이사)·기정씨

모친상, 김영완(코엑스 건설경영팀 과장)씨 장모상 = 22일, 광명성애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4일 오전 7시, 02-2684-4444

▲유선준(이데일리 기자)씨 부친상 = 22일 오전 2시 30분,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010-2474-1952

▲변진섭(가수)씨 부친상 = 2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성남영생원-이천현국원, 02-3410-3151

실속있는 **니눔쌀화환**이 인기!

재탕되는 화환은 이제 그만!

1588-0805 인터넷검색 **니눔쇼핑**

나무와 힐링 김대환의 가드닝

美·실용...내 정원에 무엇을 담을까

초보자도 쉽게 다가가는 정원조성 ②

이전 1편에서는 정원 조성의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관찰하기 대해 말했다. 공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듯 관찰하기는 정원의 전체적 큰 틀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다. 뿐만 아니라 관찰하기는 정원 조성이 끝나더라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원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1단계인 관찰이 끝나면 이제는 정원에 대해 상상해 본다. 정원을 계획함에 있어서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관찰하기가 끝났다고 혹은 좋은 재료를 원예상에서 보았으니 빨리 적용할까라는 생각은 오류로 접어드는 지름길이다. 그렇다고 너무 머뭇거리는 것도 별로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서 몇 가지 미리 생각해볼 점이 있다.



스나는 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원을 조성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위의 내용은 상상하기의 가장 기본이다. 위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의 깊이에 따라 정원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상상하기에 앞서서 정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비형식적인 정원은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비형식적인 정원은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고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흙·돌·물·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된 특정한 구역이라고 두산백과사전에 나와 있다. 또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미관이나 위락 또는 실용을 목적으로, 주로 주거지 주위에 수목을 심거나 또는 특별히 조성(造景)된 공간'이라고 정의돼 있다.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정원은 미와 실용(기능)이 기초로 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원은 아름다워야 하며, 동시에 매우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예가다. 무조건 보기에 좋은 것보다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기호에 맞는 정원을 실용적인 정원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보기에 좋고 이용이 편리한 정원인 나만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나는 정원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자. 나는 정원이 만들어지면 정원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정원 안에서 식물들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지 혹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 딸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말이다.

먼저 기능에 대해 고민하기는 정원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다. 조그마한 운동장을 원한다면 잔디정원이 어울릴 것이며, 평화로운 티타임을 원한다면 디테일이 아끼지 않은 시소그네도 좋다. 또한 바비큐를 사랑한다면 안방 창문 앞에 파타일로 한껏 치장한 화덕도 괜찮다. 이렇듯 정원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상상하다 보면 정원의 기능은 저절로 정해진다. 다음으로 형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원은 일반적으로 형식 정원 과 비형식 정원으로 나뉜다. 형식 정원은 프랑스의 자수화단이 대표적이고, 비형식 정원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원은 형식 정원의 형태를 이루어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은 후에 정원의 전체적 틀을 정할 수 있다. 조정 칼럼니스트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한국 경제의 양대 과제는 '생계형 창업의 정예화와 벤처형 창업의 확대'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대안이 창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 선진국 간에 합의된 결론이다. 그런데 모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100만개의 업체가 생겨나고 90만개의 업체가 폐업하는 생계형 창업은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창조경제연구회가 지난해 수행했던 연구의 최종 결론이다.

생계형 창업의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생존 기업들의 부가가치도 매우 낮다. 그럼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며 생계형 창업은 계속 증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속에 한계 수의 높이에 허덕이고 있다. 생계형 창업이 오히려 퇴직한 중산층이 생존으로 전락하는 통로가 돼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고로 또 하나의 중산층 붕괴 통로는 세계 최대의 투기성 파생금융 상품과 각종 사행성 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이 두 가지 중산층 붕괴의 주역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자영업 창업 지원 정책과 파생금융 활성화 정책이라

한국형 클라우드 펀딩법

는 것이다. 그래도 퇴직자들은 어떻게든 생계를 꾸릴 대안이 있어야 한다. 퇴직자들을 위한 국가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한국은 2000년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 대국을 이룩했다.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생계형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성공의 기대값은 매우 높았다. 연구 결과 생계형 창업의 미래 기대 가치는 마이너스인 반면 벤처 창업의 미래 기대 가치는 17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2000개인 벤처 창업이 3배 더 많아지면 한국의 성장과 고용 문제는 해결된다. 이 연구 결과는 창조경제의 국가 정책에 명백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생계형 창업은 정예화와 벤처형 창업은 대폭 활성화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벤처 건전화 정책 결과 지금은 한중일 삼국 가운데 기업가 정신 최하위 국가로 전락했다. 생계형 창업 자금은 베이비 부머들의 퇴직금으로 넘쳐나는데, 벤처형 창업 자금은 엔젤 투자는 미국 대비 2% 미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푸는 대안은 없을까. 성공률도 낮고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생계형 창업 자금을 상대적으로 성공률도 높고 기대값이 높은 벤처형 창업 자금으로 이전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클라우드 펀딩이 필요한 이유다. 클라우드 펀딩이 한국의 당면한 두 문제를 풀어 가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창업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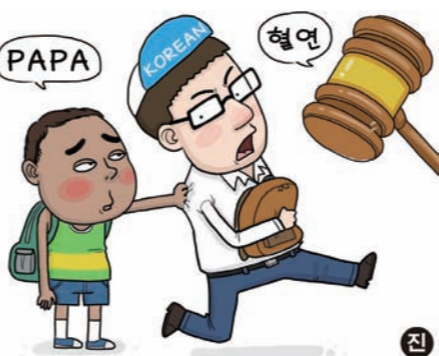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클라우드 펀딩 법은 미국의 '잡스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엔젤 투자 생태계가 이미 존재하고, 생계형 창업은 한국의 3배에 불과해 과다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엔젤 비율 50배, 생계형 비율 3배를 감안하면 한국의 클라우드 펀딩은 미국보다 150배는 강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클라우드 펀딩 제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클라우드 펀딩의 주역들이 마이크로 엔젤에 대해 투자 금액과 횟수 등을 제한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현실적으로 오프라인의 엔젤 제도를 감안해 볼 때, 규제의 실효성이 없지 않음은 명백하다. 단일 투자 금액은 마이크로 엔젤의 취지에 맞게 규제하더라도, 투자 횟수는 오히려 늘리는 것이 투자자 보호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투자자에 대해 1년 동안 매각 제한을 하는 것은 입법 취지의 의문시하게 하는 부분이다. 환급성 없는 투자를 하라는 제도는 클라우드 펀딩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오히려 환급성에 대한 제도의 장로 프리보드 2부를 열어 주는 것이 전향적 제도가 될 것이다.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하고, 사전 통제에서 사후 정벌로 가는 것이 단순하고 효과적인 창조경제의 국가 패러다임일 것이다.

퇴직자와 중견 자산가들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이크로 엔젤이 되고 벤처 창업의 멘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금과 경험이 선순환하는 창조경제 국가로 가는 길이다.

온라인 와글와글 법원서 혈연관계 첫 확인된 '코피노'...어글리 코리안들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의 혼혈)'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친부와 혈연관계를 확인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 문제를 두고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폰도 쥐어 주고 황제 노릇을 하면서 괴담도 싫고 성병 걸리기 싫고도 심대 초반 어린애들을 갖는다. 자기 이름, 주소는 한글로 육설을 적어 놓고 온다네. 부끄럽다 정말", "다른 나라의 소액의 양육비라도 보낸다네", "국내 자기 가정 파괴되는 것만 전전공공", "코피노 전체가 소송 걸길. 코피노도 니들 자신인데 외면하지 마라. 한국 부인에게도 이혼당할 테니 이중으로 돈 깨지겠지", "이래서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이 판결 환영한다. 어글리 코리안 시대가 끝나는 시발점이 되길"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도둑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진화하면서 몰카(몰래 카메라) 방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책 속을 스마트폰 크기만큼 오래나 뒤 스마트폰을 넣어 도촬? 왜 인생을 속속 한 장에 가나", "전철에서는 최대한 신체를 접촉 피하기 위해, 걸어도 땀 치마입은 여자, 계단 오르

는 여자 때문에 땅만 보고. 이런 무개념한 놈들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웃 아하게 입는 여자한테 뭐라 하는데, 여자가 웃 아하게 입는 게 왜 문제야. 대한민국 남성들 다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 작정인가? 짹는 게 잘못", "변태들도 잡아들여야 하지만, 과다 노출, 짧은 치마 단속도 부탁해요. 전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이나 계단 등의 뒤에 서 있을 때 앞에 있는 여자들 가끔 뒤돌아보며 아래위로 흘깃흘깃 쳐다보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보급이 늘면서 '도촬

오늘의 **BAEKNAK** www.baekn.com

www.baekn.com

침대축구·산책축구, 스포츠맨심은?



베트남남자팀은 23일 다양한 기자클럽을 통해 대중문화계와 스포츠계를 비판했다. '최두선의 나비효과'는 전지현, 김수현의 '장백산' CF 논란을 꼬집었다. 한 동안 잠잠하던 동북공정 논란에 전지현, 김수현이 불을 붙였다. 수심억원에 달하는 광고료는 차치하

라도 자신이 광고 모델로 나서서 제품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책임감 없는 처사다. '김민정의 시스루'는 입맛대로 시정물을 공개하는 월드컵 중계 방송 3사에 비판을 가했다. 각 방송사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시정물 1위라고 주장한다. 방송사가 시장 논리에 집착하는 동안 정작 주인공이 돼야 할 우리의 태극전사들은 조연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꽃들의 36.5℃는 스토리온 메이커 오버쇼 뱃미인4의 손기능에 대해 강조했다. 자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치료가 시급한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스타일링, 성형수술도 원조한다. 상체에 걸맞게 적절한 치료를 제안하는 과정을 부각시킴으로써 수술을 둘러싼 합목적성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홍새별의 별별애기는' '미약한 희망' 엮은 2014 서울국제도서전을 게재했다. 국제도서전의 타이틀을 가진 만큼, 국제도서전의 트렌드인 B2B 시장 지향은 필수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오상민의 현장'은 "다마리아, 이란 '침대축구'에 맞선 산책축구' 정당했다"를 주장했다. 이란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늘 '침대축구'(쓰러져 시간을 죽이는 비신사적인 축구)로 일관해 논란을 일으켰다. 승리지상주의 속 흐려지는 스포츠맨심 실종 시대를 입증하는 씁쓸한 단면이다.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유병연 동생 유병호 씨 체포, 알고 보니 박진영 장인
- 2 '총기난사' 탈영병, 제대 3개월 앞두고 범행 저지른 이유
- 3 軍, 탈영병 사살보다 검거주력... 포위면 2km로 좁혀
- 4 군, 동부전선 총기사고로 '관심사범' 관리 구명 노출
- 5 아이폰6 5.5인치 LCD 디스플레이 디자인 최초 유출

SPRING

아이타올(주)

www.itowelmall.co.kr ISO 9001 인증업체 대표번호 02) 755-1091

正論

엔젤계수와 한국경제

최근 국내 경제는 원·100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및 관광수지 적자 폭 확대에 따른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내수 경기도 가계 소비의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하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상회하고 전세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수지 악화는 물론 계층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엔젤계수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자.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유치원비, 보육료, 장난감 등)와 교육비(초·중·고교 수업료, 학원 및 보습교육비, 학교보충교육비, 교복비 등)를 넓은 의미에서 엔젤계수의 범주에 포함해 추가한다. 추가 결과, 엔젤계수는 2013년 기준 전체 1140만 가구 중 절반 수준인 561만 가구가며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1.7명으로 나타났다. 엔젤계수의 엔젤계수는 2000년 14.4%에서 상승해 2009년 20.5%에 달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3년 17.7%를 나타냈다.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엔젤계수와 비교할 때, 엔젤계수의 엔젤계수는 2002년부터 엔젤계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즉, 자녀의 교육과 보육비 지출 부담이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식료품비 지출 부담보다 높은 것이다.

육·보육비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2000년에 5분위 1분위의 2.7배였으나, 2013년에는 2.4배로 격차가 축소됐다. 이는 소득수준에 비해 저소득층 엔젤계수의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그만큼 컸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보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7%, 2010년 60.3%, 2013년 68.1%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 중 입시 및 보습학원 지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가장 높게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교육·보육비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있지만, 사교육비 규제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2013년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비 지출 증가율은 2012년 -18.1%, 2013년 -23.5%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비 지원 제도가 확대되면서 정규 교육비 지출 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교육비는 2013년 전년 대비 5.4% 증가하여 학원비 개정안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엔젤계수 상승으로 표현되는 과중한 가계의 교육·보육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교사 총원 및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공공립 보육시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취약 가구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책 확대, 입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교육·보육비 지원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 필요하다.

객석

만두와 호떡집



박명원 예금보험공사 수석책임역

만두란 음식이 있다. 지금은 라면, 김밥과 함께 분식집의 3대 축으로 자리잡으며 싸고 간편한 음식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만두는 그리 가벼운 음식이 아니다. 이 음식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음식인 것이다. 만두의 역사는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이 활약하던 삼국지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두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의 일화에서 유래한다. 그렇다면 처음 중국에서 유래한 만두는 언제 우리나라에 전해졌을까? 만두에 대한 기록이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 성호 이의(李瀾) 선생의 글에 보인다. 성호선생의 저서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萬物門)에 '만두기수뇌구'라는 제목으로 만두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들어 있다. 조선시대 상류층만의 특식이었던 만두가 요즘처럼 누구나 즐기는 서민음식으로

탈바꿈한 것은 개화가 되고 난 후의 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만두의 서민화가 20세기 초 화교들이 이주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이주하기 시작한 화교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지만 초창기에 가장 많이 종사했던 업종은 요리업이었다. 자신을 모아 대규모로 고급음식점을 여는 화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보편적인 형태는 규모가 작은 호떡집을 여는 것이었다. 화교들의 호떡집은 가격이 저렴하고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맞아 특히 서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았다. 그런데 당시 호떡집에서 만들어 판 호떡 중에는 만두도 포함되어 있었다. 딱에 중국을 뜻하는 '호(胡)' 자를 붙인 것이니 호떡집은 중국 빵가게란 의미였다. 이 화교들의 빵가게에서는 당화소(糖火燒), 계란빵, 갸빵, 구운빵, 만두, 피자 등을 팔았다. 호떡집에서 팔던 빵을 통칭하여 '호떡'이라 불렀으니 만두도 호떡의 일종이었던 것이다. 당시 호떡집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호떡은 당화소였다. 당화소는 동글납작한 밀가루 반죽에 검은 설탕을 넣어서 만든 빵인데 지금은 변질에 기를 두르고 튀겨내지만 당시는 화벽에서 구워내던 빵이었다.

기자의 눈

투명성 요구되는 기업 사회공헌



최재혁 산업부/freshphase@

남의 주머니를 털어 좋은 일에 쓴다면 이것은 선일까? 그리고는 칭찬까지 독차지한다면?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밑바탕부터 당위성을 갖춰야 한다. 갖은 불법, 편법으로 약자같이 번 돈의 사회 환원을 결정한 한 회장님에게 우리 사회가 교운 시선을 보내지 않는 이유다. '돈' 꼭 재원을 둘러싸고 문제가 많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확대되면서 그 기부의 출처, 용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수입차 업계에서는 한 수입차 업체의 사회공헌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사회공헌을 하면서 차를 판매하는 딜러사에 재원 마련을 일부 요구했다. 각 딜러사에 할당량까지 지켰다고 한다. 갑이 시키니 을은 숨죽

일 수밖에. 계약이 해지될까, 물량이 줄어들까 두려워 "이번달은 얼마까지는 채워야 한다"는 지점장의 고성음 딜러의 가슴을 졸이게 했다. 타인의 의지로 내 월급이 깎일 때 웃을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이러한 일은 비단 수입차 업계에 국한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사회공헌 재원을 통해 개인의 돈을 착취하고 재단이 비리에 연루된 사건은 속출해 있다.

실천은 안과 밖의 손이 맞춰질 때 '참'이다. 안으로는 기업시민 철학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밖으로 보여주지만 허허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업은 눈에 띄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고민하기 앞서 올곧은 철학을 세우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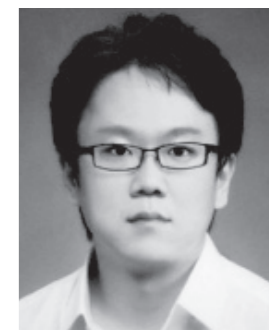
세월호 사건 때 '국가의 책임'이라는 본질을 희석시킬 것이란 우려에서 '기부금을 내지 말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더욱이 과거 재난 상황에서 '기부금의 용처가 확실치 못했다'는 불신도 큰 상황이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달랐으면 한다. 재원 마련부터 사용처가 투명성을 더 갖춰 불신의 벽이 아닌 신뢰의 온실에서 성장하길 바란다.

안철우의 지금 여기

은행장들의 자리욕심

문장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공중파 매체인 MBC가 최근 긴급 대담을 편성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장시간 그의 교회 강연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한시간 분량의 그의 강연을 놓고 과연 친일이나 아니냐 하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만큼 문 후보자를 옹호하는 집단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일부는 폐쇄적인 종교집단 내부에서만 발언이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공통된 집단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민족관과 역사관을 발연한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명확한 오점이 있습니다. 어렵게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문 후보자의 인생 철학에서 신뢰는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교적 울타리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 모습이 다르다면 그는 분명 어느 한 곳에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최우대는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에 대한 재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는 연일 조석(朝夕)으로 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문 후보자가 마치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모양새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분명 존재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금융당국 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어처구니 없는 모양새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문 후보자 사채처럼 자리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계를 받은 은행장이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현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기이한 결과가 나타

나고 말았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통상 자리를 털고 물러나는 게 관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중징계를 통보 받더라도 차기에는 행장을 할 수 없지만 직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행장은 이례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이 정계 해석을 현실화했습니다.

김감독은 이런 김 행장이 눈엣가시인 듯 내달 사기대출 연루 등 은행의 다른 잘못을 꼬집어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6일에는 KB금융그룹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이뤄집니다. 앞서 김감독은 임영목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근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퇴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임기가 2년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취 문제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최근 KB금융은 김감독에 징계를 앞두고 소명 준비 기간이 짧다며 제재심의위원회를 늦춰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최대한 소명해서 징계 수위를 낮출 목적에 왜 제재심의위가 열리는지 배경을 잊은 듯 합니다. 문 후보자는 하루종일 인사청문회 준비로 여분 동향을 살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KB금융도 최근 소명자료라는 변명에만 매달리기에 따가운 시선을 맞고 있는 듯 합니다. 금융시장부 차장 acw@

이투데이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 편집인, 편집국장, 광고국장, and various editorial roles with phone number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book '영영이별 영이별' by Kim Byul-ah. Features a woman's portrait, the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전가요?"

“1승 상대” 알제리에 완패... 16강행 ‘빨간불’

전반에만 3골 내주며 ‘흔들’ 수비진 불안 우려가 현실로 후반 손흥민·구자철 만회골 막판 추격 나섰지만 역부족 흥 “알제리 생각보다 강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다”



23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한국과 알제리의 경기에서 알제리 이슬람 슬리마니가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알제리에 참패했다. 무려 4골을 헌납하며 무기력하게 패배했다. 한국은 23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에스타지우 베이라히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조별예선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수비 허점을 노출하며 2-4로 무너졌다. 이로써 한국은 H조 조별예선 중간성적 1무 1패(승점1)로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한국은 최전방에 박주영(아스널)을,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정용(볼턴 원더러스)은 측면 공격수로 기용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주장 구자철(마인츠)이 나섰고, 중원은 기성용(스완지시티)과 한국영(가시와 레이솔)이 맡았다.

수비 라인은 윤석영(퀸즈파크레인저스), 김영권(광주에버그란데),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이용(울산 현대)이 책임졌다. 골문은 정성룡(수원 삼성)이 지켰다.

경기 초반 주도권은 알제리에 내줬다. 전반 10분이 지날 때까지 한국은 알제리의 맹공을 막아내는 데 급급했다. 전반 중반 손흥민과 이정용의 측면 공격이 살아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러시아의 빗

장수비를 뚫지 못했다.

결국 한국은 전반 26분 뒤쪽에서 들어온 스투페스 한방에 무너졌다. 메자니의 패스를 받은 슬리마니가 한국 수비 사이를 돌파한 뒤 칙 솟으로 간단하게 선제골을 뽑았다.

첫 골을 내준 한국은 2분 만에 골키퍼 정성룡의 판단 미스로 추가골을 내줬다. 전반 28분 알제리의 코너킴 상황에서 할리시가 헤딩으로 0-2를 만들었다. 코너킴을 처리하기 위해 나온 정성룡이 편칭에

실패하며 치명적 실점을 기록했다.

추가 골 이후 급격히 흔들린 한국은 전반 38분 자부에게 한 골을 더 내주며 무너졌다. 선제골의 주인공 슬리마니의 패스를 받은 자부는 노마크 상황에서 간단하게 득점에 성공해 0-3을 만들었다.

만회 골 없이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 5분 손흥민의 골로 1-3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다. 기성용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두 명을 따돌린 뒤 강력한 왼발 솟으로 알제리의 골문을 갈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국은 후반 17분 페굴리의 패스를 받은 브라히미에게 쐐기골을 허용하며 다시 흔들렸다.

한국은 후반 27분 박주영을 대신해 투입된 이근호의 패스를 받은 구자철이 득점에 성공하며 마지막까지 알제리를 추격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 2-4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1승 제물'로 여겨졌던 알제리에 일격을 당한 한국은 1무 1패로 H조 최하위로 떨어져 16강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전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알제리가 강했다”면서 “오늘의 패배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3실점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명보 감독은 또 “남은 기간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 선수들을 안정시켜서 마지막 맹기에 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죄송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오상민·김종호 기자 golf5@

조별리그 성적						
★ 표는 16강 진출 확정						
A조 국가명 승점 승 무 패 골득실						
	브라질	4	1	1	0	2
	멕시코	4	1	1	0	1
	크로아티아	3	1	0	1	2
	카메룬	0	0	0	2	-5
B조 국가명 승점 승 무 패 골득실						
	네덜란드	6	2	0	0	5
	칠레	6	2	0	0	4
	호주	0	0	0	2	-3
	스페인	0	0	0	2	-6
C조 국가명 승점 승 무 패 골득실						
	콜롬비아	6	2	0	0	4
	코스타리카	3	1	0	1	0
	일본	1	0	1	1	-1
	그리스	1	0	1	1	-3
D조 국가명 승점 승 무 패 골득실						
	코스타리카	6	2	0	0	3
	이탈리아	3	1	0	0	0
	우루과이	3	0	1	1	-1
	잉글랜드	0	0	0	2	-2
E조 국가명 승점 승 무 패 골득실						
	프랑스	6	2	0	0	6
	에콰도르	3	1	0	1	0
	스위스	3	1	0	1	-2
	우크라이나	0	0	0	2	-4
F조 국가명 승점 승 무 패 골득실						
	아르헨티나	6	2	0	0	2
	나이지리아	4	1	1	0	1
	이란	1	0	1	1	-1
	보스니아	0	0	0	2	-2
G조 국가명 승점 승 무 패 골득실						
	독일	4	1	1	0	4
	미국	4	1	1	0	1
	가나	1	0	1	1	-1
	포르투갈	1	0	1	1	-4
H조 국가명 승점 승 무 패 골득실						
	벨기에	6	2	0	0	2
	알제리	3	1	0	1	1
	러시아	1	0	1	1	-1
	대한민국	1	0	1	1	-2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일정						
6월24일(화)						
01:00	B	호주 - 스페인(쿠리치바)				
01:00	B	네덜란드 - 칠레(상파울루)				
05:00	A	카메룬 - 브라질(브라질리아)				
05:00	A	크로아티아 - 멕시코(헤시피)				
6월25일(수)						
01:00	D	이탈리아 - 우루과이(쿠리치바)				
01:00	D	코스타리카 - 잉글랜드(벨루오리존치)				
05:00	C	일본 - 콜롬비아(쿠이아바)				
05:00	C	그리스 - 코트디부아르(포르탈레자)				
6월26일(목)						
01:00	F	나이지리아 - 아르헨티나(포르투알레그리)				
01:00	F	보스니아 - 이란(살바도르)				
05:00	E	우루과이 - 스위스(마나우스)				
05:00	E	에콰도르 - 프랑스(리우데자네이루)				
6월27일(금)						
01:00	G	미국 - 독일(헤시피)				
01:00	G	포르투갈 - 가나(브라질리아)				
05:00	H	대한민국 - 벨기에(상파울루)				
05:00	H	알제리 - 러시아(쿠리치바)				

홍명보호 16강 진출 ‘경우의 수’

비기기만 해도 끝장 벨기에전 ‘벼랑승부’

무조건 이기고 러시아도 승리 골득실 2골 이상 앞서야 가능



벨기에 공격수 디브코 오리기(오른쪽)가 러시아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한국-알제리 전에 앞서 열린 H조의 또 다른 경기에서는 벨기에가 러시아를 잡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벨기에의 23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조별예선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후반 43분 터진 디브코 오리기(벨)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힘겹게 승리했다.

이로써 벨기에의 알제리(2-1)에 이어 러시아(1-0)까지 제압하며 2연승(승점6)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초반 주도권은 벨기에가 잡았다. 벨기에의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러시아를 밀어붙였다. 전반전 10분까지 볼 점유율 72대 28을 기록할 만큼 압도적 경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밀집 수비에 막혀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이후 러시아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양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로써 한국이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벨기에 전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러시아가 알제리를 이겨야 한다. 단, 한국은 러시아보다 2골 이상 많이 넣어야 러시아를 누르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1무 1패(승점1) 3득점 5실점(-2)로 승점에서는 러시아와 동률을 이뤘다. 그러나 러시아는 골득실(1득점 2실점-1)에서 한국보다 앞선다. 따라서 러시아보다 2골 이상 많이 넣어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오상민·김종호 기자 golf5@

반편이 놓치며 헛심 공방전을 펼쳤다.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았던 경기는 결국 벨기에 에이스 아자르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균형이 깨졌다.

후반 43분 아자르가 러시아의 왼쪽 측면을 돌파한 후 패스한 볼을 후반 교체로 들어온 오리기가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 넣으며 이날 경기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렸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 러시아의 마지막 추격을 뿌리친 벨기에의 승점 3점을 추가하며 H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한국이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벨기에 전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러시아가 알제리를 이겨야 한다. 단, 한국은 러시아보다 2골 이상 많이 넣어야 러시아를 누르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1무 1패(승점1) 3득점 5실점(-2)로 승점에서는 러시아와 동률을 이뤘다. 그러나 러시아는 골득실(1득점 2실점-1)에서 한국보다 앞선다. 따라서 러시아보다 2골 이상 많이 넣어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오상민·김종호 기자 golf5@

16강 진출팀 살펴보니

‘D조 제물’이라던 코스타리카의 역습

‘전통강호’ 우루과이·이탈리아 연달아 꺾이며 일찌감치 16강행 ‘스페인 함대’ 잠은 네덜란드·칠레 아르헨티나·콜롬비아·벨기에도

2014 브라질월드컵 16강 진출 팀이 속속 가려지고 있다.

23일(이하 한국시간) 현재 16강 진출이 완전히 확정된 팀은 B조의 네덜란드와 칠레, C조 콜롬비아, D조 코스타리카, F조 아르헨티나, H조 벨기에(이상 2승·승점6), E조 프랑스도 2연승을 달리며 승점6을 챙

겼지만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반면 A조 카메룬, B조 스페인과 호주, F조 보스니아, E조 우루과이(이상 2패)는 예선 탈락이 확정됐다.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코스타리카다. 코스타리카는 15일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3-1로 승리하며 이변을 일으켰고, 21일 이탈리아 전에서는 전반 44분 터진 브라이언 루이스가 헤딩 결승골로 2연승을 거뒀다. 이로써 코스타리카는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죽음의 D조’ 탈출에 성공했다.

‘죽음의 B조’는 네덜란드와 칠레의 16강 진출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지난 2010 남아공월드컵 우승팀 스페인과 준우승팀 네

덜란드가 같은 조에 편성, 최악의 죽음의 조로 평가됐지만 ‘무적함대’ 스페인이 네덜란드에 1-5 대패한 데 이어 칠레에도 0-2로 완패,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낳았다. 반면 네덜란드는 스페인 전 5골에 이어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3-2로 승리하며 2경기에서 8골을 몰아넣는 파괴력을 보였다.

C조 콜롬비아는 그리스 전 3-0 승리에 이어 코트디부아르 전 2-1 승리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아르헨티나(F조)는 특급 공격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를 앞세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1)와 이란(1-0)을 차례로 격파하며 16강 대열에 합류했다. H조 벨기에의 알제리(2-1)와 러시아(1-0)를 차례로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22일 오전(한국시간) 가나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월드컵 15호 골을 쏘아올린 클로제가 득점 후 덤블링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AP뉴시스

클로제 덤블링 한번 더 하면...

현재 통산 15골... 호나우두와 최다득점 타이 기록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36·라치오)가 월드컵 통산 15호 골을 터뜨렸다. 은퇴한 브라질의 ‘축구 황제’ 호나우두(38)와 최다골 동물이자.

클로제는 22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포르탈레자의 에스타디오 카스텔랑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G조 조별예선 가나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자신의 월드컵 통산 15호 골이자 동점골을 터뜨리며 포효했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첫 월드컵 무대를 밟은 클로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예선 1차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했다. 특히 큰 신장과 가공할 공중볼 장악으로 5골 모두 헤딩으로 만들어내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2006 독일월드컵에서도 5골을 뽑으며 득점왕에 오른 클로제는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4골을 추가해 호나우두가 보유하고 있던 최다 골 기록(15골)에 1골 차로 따라붙었다.

이번 브라질월드컵을 앞두고 극적으로 독일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선발된 클로제는 결국 가나와의 2차전에서 기다리던 15호 골을 터뜨리며 호나우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현재 1승 1무(승점4)로 G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독일은 16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에서도 클로제가 호나우두를 넘어 새 역사를 쓸 가능성은 충분하다. 클로제는 가나와의 경기 후 “최다 골 기록은 매우 특별한 일이지만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로 겸손함을 보였다.

김종호 기자 kona@

**농수산물 FTA파고
수출로 남자**

- ① 중국시장이 새 성장 동력
- ② 농수산물 수출강국으로
- ③ 농어업R&D 6차산업 육성
- ④ 젊은 농어업인 키워야
- ⑤ 산지조직체 육성하려면
- ⑥ 농업강국 네덜란드를 배우자
- ⑦ 전문가 좌담회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일했던 기무라 오사무 일본 모쿠모쿠농장 사장은 1987년 양돈 농가의 어려움을 보고 생각의 전환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6차산업을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경제 버블기가 찾아와 은행이 도산하던 시절이어서 기무라 사장은 16농가 3800만엔과 미에현에 도움을 요청해 농장을 설립했다고 한다. 지금은 연 50만명의 관광객과 5만명의 회원을 둔 연매출 750억원의 일본 최대 농장으로 성장시켰다. 모쿠모쿠농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농산물로 소시지, 맥주, 우유, 빵 등 제품을 생산하고 체험교실, 레스토랑, 숙박시설까지 갖춘 관광체험 사업까지 영위하는 대표적인 6차산업 성공 사례로 꼽힌다.



우리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새롭고 활기찬 6차 산업화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체험여행 프로그램 '해피버스테이(Happy Busday)-도시와 농촌의 유쾌한 동행'에 참여한 한 어린이가 직접 뽑은 감자를 들어올리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신농업 비즈니스 '6차 산업'... 부농의 꿈 키운다

6차산업은 농업생산 1차산업과 농산물 가공 2차산업, 관광·유통·외식·서비스 등 3차산업을 융·복합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6차산업을 통한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와 기업 소득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력 있는 식품기업과 농가가 손잡고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CJ, SPC, 농심, 매일유업 등 대기업들이 지역 농가와 협약을 맺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료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CJ는 2015년까지 국산 농산물 구매를 1조7000억원 늘릴 예정이고 SPC는 2018년까지 우리밀 구매량을 8000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심도 감자 등 국산 농축산물을 향후 5년간 14만1000톤 확대 구매할 계획이고 매일유업은 2018년까지 지역 농축산물을 23만5000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이 6차산업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받아 경쟁력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농가와 국산당, 풀무원 등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6차산업 주체 1000개를 육성하고 올해 6차 산업화지구 3곳을 신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에 추가로 100억원을 조성해 투자 로드쇼를 통한 기업과 농업인 간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6차산업이 농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단으로 구성된 6차 산업지원센터를 각 지역에 만들어 6차산업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농산물 시장 개

1·2·3차 산업 융복합 지역경제 활성화
식품기업·농가 손잡고 안정적 판로 구축
기업, 고품질 원료로 고부가 상품 만들어
글로벌시장 제품 경쟁력 강화 이윤 창출
정부, 멘토단 운영·펀드조성 정책적 지원

방과 넓어지는 해외시장을 선점하고자 우리 농식품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품질관리, 연구개발, 시설개선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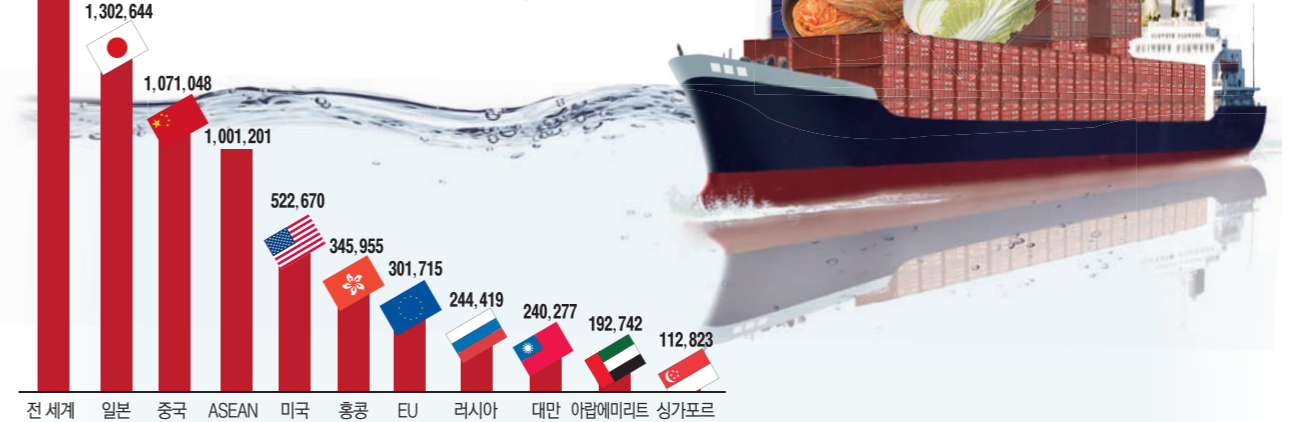
이동필 장관은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은 우리 농축산물의 수요 확대와 우리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좀 더 6차산업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고령화와 개방화 시대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민 기자 lawsdm@

2013년 농식품 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농식품 전체	구분	가공식품	곡류	과일채소	임산물	축산물
5,957,284	전 세계	4,175,641	155,130	642,976	547,864	435,673
	일본	863,689	80,464	255,524	56,662	46,305
	중국	720,958	2,992	74,547	127,410	145,142
	ASEAN	609,243	44,885	56,227	200,484	90,362
	미국	380,577	9,658	74,058	23,438	34,939
	홍콩	260,264	2,539	31,669	3,502	48,021
	EU	255,114	1,007	23,216	8,625	13,753
	러시아	205,410	878	19,011	4,775	14,345
	대만	125,429	3,939	45,970	56,760	8,178
	아랍에미리트	184,418	302	2,743	4,952	327
	싱가포르	80,188	2,921	18,263	2,381	9,069

* 가공식품은 농산물에서 곡류, 과실류, 채소류를 제외한 나머жим
*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SR 넘어 CSV... 유망 지역업체와 '즐거운 동행'

(공유가치 창출)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의 음료 '뽕인수'가 국내 대표 음료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뽕인수는 CJ제일제당의 상생 브랜드인 '즐거운 동행'으로 탄생한 제품이며 의미는 더 크다.

동이나 뽕인수는 전남 나주지역 특산물인 '뽕'을 활용한 차 음료로, 세계적인 음료식품 플랫폼인 '2012 월드 선택션'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전국 단위의 유통·마케팅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CJ제일제당과 손을 잡았던 것은 바로 그때였다. 지역 상생 브랜드 발굴에 한창인 CJ제일제당이 2012년 동이나의 나라와 상생협약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즐거운 동행 뽕인수'로 새롭게 선보이게 된 것. CJ제일제당은 '컨디션 핫개수'에 이어 '뽕인수'로 음료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뽕인수의 기능, 무첨가 등을 앞세우고 '컨디션 핫개수'와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음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의 상생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넘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지역 중소기업 협력기업 제

나주 특산물 '뽕' 음료 등 유통·마케팅 지원 시장 공략 중소기업 연구개발 돕고 판로 개척 녹색경영 노하우도 전수

품의 브랜드 육성 및 전국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 브랜드 '즐거운 동행'은 두부, 장류, 김치, 음료, 막걸리 등 많은 부문에서 지역 유망 식품기업의 전국 유통과 성장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역량을 지원해주는 'R&D 동반성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중소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녹색 동반성장' 등 CJ제일제당의 활동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경기도와 협력해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CJ 제품에 적용시켰다. CJ제일제당은 이 제품의 R&D를 지원해준 것은 물론, CJ푸드빌 푸레쥬르 전국 매장에서 빵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로까지 개척해줬다.



여기에 협력업체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작년 녹색경영 상생 프로그램을 실행한 CJ제일제당은 협력업체 15곳에서 온실가스 2800톤을 감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원어치의 에너지 사용량이다. 협력업체들의 반응이 고무적인 만큼, 올해 녹색경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협력업체 수를 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CJ제일제당 CSV경영팀 임석환 팀장은 "CJ제일제당의 상생 활동이 즐거운 동행, R&D, 녹색경영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그룹은 작년 11월 5일 CSV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CSV경영 강화 방략에 따라 그룹 내에 전담 부서인 CSV 경영실을 설치했으며, 지주사 임원 및 계열사 대표들로 구성된 '그룹 CSV 경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각 계열사에도 CSV팀이 신설돼 각 사업에 맞는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계열사 중 CJ푸드빌은 우리 농가 살리기에 가장 적극적이다. 작년 7월 음식의 근본이 되는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부와 상생하기 위해 한식 브랜드 '계절밥상'을 론칭했다. 우리 땅에서 난 제철 신선채소로 메뉴를 구성했고, 매장 입구에는 농부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과 가공품을 홍보하는 도·농 직거래 마켓이 들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고리를 마련했다.

이선에 기자 isa@



CJ그룹은 작년 11월 5일 CSV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각 계열사는 사업에 맞는 상생경영을 적극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CJ

메리츠화재 즐거운 보험 캠페인
1 합쳐서 할인해주는 멀티디스카운트

고객을 위한 즐거운 보험은 계속됩니다

합쳐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 **즐거운 보험**

(주)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 M Basket

✓ 멀티디스카운트: 보장, 저축, 연금, 자동차 결합 가입시 0.5~1.5% 보험료 할인

- ▶ 고객맞춤 보장설계
 - 고객 별 위험에 따라 맞춤 보장설계
 - 저축 및 연금보장을 통한 든든한 노후준비
- ▶ 현물보상 솔루션
 - 실손의료비 보장은 물론, 24시간 간병인 지원
 - 암진단부터 완치까지 관리해주는 암케어 패키지

본 상품의 다양한 특약사항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566-7711

휴일보험금 안내 02-2084-7912
보험사기 신고센터 1588-3311

대한민국 1호 **즐거운** 보험회사
MERITZ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1922년 창립된 대한민국의 최초 보험회사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번호 제2013-1286호 (2013.5.27) 기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며, 보증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장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억원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적인 보험계약 제외



영천미사과 농민들이 파리바게뜨가 지원한 사과상자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SPC

'불량' 오해받던 미사과 케이크 만나니 매출 대박



SPC그룹

'영천미사과' 파리바게뜨 공급 후 생산량 4배 경증... 학교급식 납품 농가마다 연평균 8000만원 수익 딸기,파프리카 등 동반성장 앞장

영천미사과는 40~50g 정도 크기로, 보통 사과 7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비타민C와 과당 함량이 일반 사과보다 높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불량 사과'로 오해받으며 고전했다. 2007년부터 영천미사과를 재배하고, 2011년부터는 'FTA대응 대체 과수'로 생산량을 더욱 늘린 농가들은 막막하기만 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12년 9월이다. 경북 영천시·파리바게뜨가 맺은 '미사과 공급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케이크를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 것.

영천시는 SPC그룹에 미사과를 2012년 10월, 지난해에는 14톤을 납품했다. SPC그룹은 미사과를 파리바게뜨 케이크 장식용으로 사용했다. 작고 귀여우면서 맛도 달콤한 미사과는 케이크 장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병해충에 강해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 대부분이 물러 있는 사과껍질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특징도 안성맞춤이었다.

이렇게 체라·오렌지 등 수입과일 대신 미사과가 올라간 '가을사과요거트' 케이크는 지난해 가을, 일반 케이크의 4배 매출을 기록하는 '대박'을 냈다. 직접 재배한 미사과를 함이름 안고 활짝 웃는 농부 최병혁(68)씨 포스터는 전국 3400개 파리바게뜨 매장에 붙였고, 영천미사과는 충분한 홍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영천미사과 농가들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지역 100여개 학교에 급식용 미사과도 납품하게 됐다. 미사과 생산량은 지난해 120톤으로, 2007년 30톤보다 4배 늘었다.

SPC그룹이 미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건넨 선급금은 영천 영농조합이 미사과

전용 농장을 짓는 데 쓰였다. 백영삼 경북 영천 영농조합 대표는 "우리가 키우는 미사과가 파리바게뜨 케이크에 장식되면서 농가마다 연평균 8000만원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홈페이지를 통해 '별빛촌 미사과' 예약구매 링크를 제공해 지역 농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왔고, 디자인 재능기부를 통해 3000만원어치 포장박스 1만4000개를 농가에 지원했다.

이같은 파리바게뜨와 영천미사과 농가의 협업은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생 협력 동반성장 성공 대표 사례'로 보고됐다.

SPC그룹은 영천미사과 외에도 2008년부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행복한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산청 딸기, 강원 파프리카 등 전국 10여곳과 농산물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농가의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우수 자조금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국산우유 제품 10여종을 내놓았다. 올 봄 출시한 '순수우유케이크'는 우유 함량을 73%까지 높인 제품으로, 10년 만에 치즈케이크를 제치고 케이크 판매 1위에 올랐다.

이다람 기자 zing@

'신토불이' 식재료로... 소비자엔 '입맛' 농민엔 '살맛'

농심 농심

농심이 지난 4월 국산 수미감자로 만든 감자스낵 수미칩에 이어 감자스낵 '입친구'를 선보였다. 상품명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친구같은 과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입친구 한 봉지에는 1개 반 분량(약 320g)의 수미감자가 들어간다. 주목할 사실은 100% 국산 수미감자라는 것. 국내에서 판매되는 감자스낵은 대부분 수입산 수미감자로 만들어진다.

농심은 100% 국산 수미감자로 감자스낵 입친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농가와 손을 잡았다.

지난 4월 농심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감자연구회 등과 '상생협력,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국산 감자는 공급량 증가로 판로에 비상이 걸렸으며, 한우 사육 역시 추락하는 가격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상태다. 이에 농심은 국산 식재료 구매를 늘려 농가 소득에 기여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농식품부와 농심은 △생감자, 쌀, 한우사육 등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국산 농축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보급 △우리 식품의 세계 진출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협약의 골자로 잡았다. 농심은 앞으로 5년간 국산 농축산물 14만1000톤을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심은 2만368톤을 구매했다.

박준 농심 대표는 "농업인과의 상생협력을 통

상생 협력, 동반성장 협약' 체결 5년간 농산물 14만톤 구매계획

100% 국산감자 쓴 '수미칩' 이어 '입친구' 한달 만에 매출 10억원

한우 사육, 라면 스프에 활용 수급안정·농가 소득증대 기여



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농업인과 농민,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 나가기 위해 최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현재 전국의 450여곳 감자 농가와 사전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감자 농가는 작황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과 판로를 확보한다. 실제로 작년 일부 감자 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농

심은 당초 계약한 물량을 계획대로 전량 구입했다. 이 같은 체계적 감자 구매로 농심은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좋은 질(質)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심 관계자는 "입친구와 수미칩은 국산 수미감자와 전일염만으로 만들어져 맛은 물론 영양까지 생각한 착한 스낵"이라고 강조했다.

입친구는 최첨단 기술로 불리는 '저온진공' 공법으로 만들어 바삭하고 영양 손실이 적다. 출시 한 달 만에 매출 10억원을 달성했다. 농심은 올 입친구로 1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농심은 한우사육도 향후 5년간 3800톤을 구입할 계획이다. 한우 사육의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다. 한우사육 1kg의 가격은 2003년 2만5000원대에서 지난해 3300원대로 7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 농가의 시름이 깊다.

농심은 대량의 한우사육 가공을 위해 최근 안성공장에 설비를 증축했다. 최신의 가압추출기, 연속식 농축기 등 사육 농축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기에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추출 노하우를 적용, 한우사육 고유의 맛과 풍미를 고스란히 스프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농심 측은 "한우사육을 직접 회사가 구매할 경우 일시적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만큼, 축산 전문가를 통해 구매해 안정적 수급과 축산 농가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우사육 스프를 신라면 블락과 '농심 떡국면'부터 적용한 뒤 점차적으로 적용 제품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농심은 5년간 국산 농축산물 14만1000톤을 구매할 계획이다. 사진은 감자농가 일손돕기에 참여한 농심 직원들의 모습. 사진제공 농심



유치원생들이 상하농장에서 유기농 목장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매일유업

엄마 '친환경 먹거리' 배우고 아이들은 신나는 '목장 체험'



정부와 '상하농장 프로젝트' 협약 전북 고창에 3만평 규모 농원 조성 복분자·고추장 등 지역 특산물 확대 숙박·레스토랑 등 관광 활성화 기대

석 달 만에 찾아온 황금연휴, 김복동씨는 아내와 아이 2명을 데리고 나들이에 나섰다. 예년 같으면 캠핑장비를 꾸러 산이나 계곡, 바다 등을 찾았겠지만 이번엔 농촌을 체험하면서 숙박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이들과 함께 치즈를 만들고 햄과 빵, 된장·고추장 등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 제대로 배울 생각이다.

육십 평생 농사만 지어 온 김창기씨는 최근 직장이 생겼다. 마을 옆에 큰 농장이 생겨 그곳을 관리하는 일이다. 이웃집 처씨 부부 역시 같은 곳에 취업했다. 이번 주말은 3일 연휴라 관광객이 물러올 것에 대비해 출근을 서둘렀다. 체험 물품 준비와 청소, 안전점검 등 준비를 위해 농원 구석구석을 살펴보고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매일유업이 전라북도 고창군에 건설하고 있는 '상하농원'에서 일어난 가상의 일상이다.

일명 '상하농원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사업은 매일유업이 정부와 지역사회 등과 함께 만드는 농업 비즈

니스 모델이다. 농수산업(1차 산업), 제조업(2차 산업), 서비스업(3차 산업)이 복합된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신산업 구조로 농업과 농촌의 6차 산업으로도 불린다.

매일유업 김경완 회장은 지난 5월 정부와 협약을 맺고 상하농원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키로 했다.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모델 제시 △건강 한국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 개발·보급 △친환경 유기농 축산의 발전 방향성 제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지역사회·행정·기업이 서로 협력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지역 활성화 모델 정립이 목표다. 매일유업이 지역 농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 판매하고, 친환경 먹거리를 주제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 매일유업의 유제품 공장이 있는 전북 고창 상하면에 3만평 규모로 지어지는 '상하농원'은 유제품 공방을 비롯해 햄, 빵 공방 외에도 복분자 등 과일 공방, 된장·고추장의 장류 공방 등으로 고창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계획이다. 숙박시설과 레스토랑도 겸비해 신규 관광객 유입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유업은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실현 및 국산 농축산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치원생, 청소년, 가족 대상으로 유기농 목장 체험, 친환경 비농사 체험, 지역 특산물 요리 체험, 향토 요리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연인원 32만명 이상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경완 회장은 "상하농원이 '정부-기업-민간단체-농가가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국 농업 성장의 기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철규 기자 yoonck@

'금융주치의'는 엄격하게 선발된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전문금융지식과 투자컨설팅경험을 갖춘 165명 금융주치의들이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산 리밸런싱을 제안합니다.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 금융주치의는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로서 상법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제 41-0271044호)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2245호(2014.04.07 ~ 2015. 04.06)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축산 강국인 미국·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축산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창궐해 돼지고깃값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중국의 수입 조사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조사료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계가 나라 안팎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취임 3개월을 맞은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넓히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의 위기를 축산산업의 더 큰 미래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FTA, 축산물 수출 기회 될 수도 유통개선 한우 가격 7% 낮출 것

인터뷰=신동민 세종취재본부장

△어느덧 취임한 지 석 달을 맞았다. 취임 첫째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FTA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축산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선 사료값 안정 등 생산비 절감에 힘을 쏟겠다. 국제 곡물가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세계 최대의 타피오카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에 1200만 달러를 투자, 현지 가공공장 인수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알파파와 티모시 등 고급 건초를 생산하는 미국 현지 사업장 인수 계획까지 성사될 경우 연간 100만톤의 조사료 수입 부담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축산 상생협력에도 관심이 많다. 정부의 대북정책 여건이 성숙될 때 대비해 농협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협남북축산교류협력포럼'을 구성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상과제들은 지난 4월 출범한 '축산경제 혁신 TF'단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비정상 관행과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는 '투명경영', 성과주위에 입각한 보상과 평가가 이뤄지는 '내실경영', 현장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책임경영' 등 3대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고령화로 번식우를 키울 수 있는 농가가 줄어든다는 구조적 어려움도 있을 텐데, 사료값 안정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생축장 활성화, 사료값 안정,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강화를 통해 번식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령층의 유류 노동력을 활용, 10마리 정도의 암송아지를 입식해 우량 송

아지를 생산·판매하는 일명 '개미군단사업'도 구상 중이다."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소비위축에도 최근 돼지고깃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수급조절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4월에서 8월은 외식과 나들이 등으로 수요가 많다. 여기에 수산물의 방수 문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대체재로 돼지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작년 모든 감축을 실시한 데다 유행성설사병으로 공급

수입개방 파고... 농가 지원책

사료값 안정 등 생산비 절감에 중점 해외 사료공장 인수, 저렴한 공급 축산물 FTA 초민감품목 포함 노력 피해보전 직불금·세제지원 이끌 것

이 줄어든 탓도 있다. 또 지난 2년간 생산두수 과잉으로 돼지고깃값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도 원인이다. 다만 돼지고기 가격은 6-7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질병으로 인한 돼지의 폐사를 막고 생산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우수 종돈 분양과 지속적 농가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축산물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에 축산농가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책은.

"미국, EU(유럽연합)에 이어 호주, 캐나다 등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값싼 축산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만 전통적 축산강국으로, 쇠고기·돼지고기·유제품 등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지리적 인접성이 좋은 데다 엄청난 물량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축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 농협은 우선 현재 협상 중인 한·중, 한·뉴질랜드 FTA에서 축산물을 최대한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고 중국이 검역상 '지역화'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 정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개선,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 개선사항을 건의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 수출액을 오는 2016년까지 500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구체적 실행 액션플랜을 듣고 싶다.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당장 축산농가에게는 위기이지만, 국내 축산 식품 수출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축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해지는 만큼 새로운 소비시장이 확대돼 축산업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안정적 수출 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전략은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국가별로 수출전략 축산식품을 개발하고 수출 주력 생산조직을 키우는 것이다. 신규 수출시장의 경우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팸투어 등 다양한 프로모션과 함께 '농협 축산식품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 지원과 조향·계열사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려 한다. 특히 중국 쇠고기 시장은 소비자가 1억 명이나 되며 연간 3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급 육 시장을 겨냥한 한우 수출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말고기 시장 개척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

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말고기 문화의 저변 확대가 부족했는데, 어떻게 시장을 키워 나갈 계획인가.

"말고기는 저지방·저칼로리·고단백 식품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이 절반 이하이고 이미 노산도 풍부하다. 철분 함량도 높아 성장기 어린이나 여성에게 좋으며 높은 글리코겐 함량 덕에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프랑스, 일본 등에서 말고기가 남성에게는 스테미너 음식, 여성에게는 다이어트 음식, 어린이에게는 고영양 성장식으로 각광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협은 이 같은 말고기의 영양학적 장

축산업 경쟁력 어떻게 키우나

각국 입맛에 맞는 축산식품 개발 2016년까지 수출 5000만달러로 '개미군단사업' 송아지 생산·판매 말고기 확산... 남북 축산 협력도

점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말고기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우선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말고기 소비가 전체 육류 소비량의 1%도 되지 않는 연간 150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기존 육류와 경쟁하기보다는 특색 있는 축산물, 틈새 육류 상품으로 포지셔닝해 나가려 한다."

△축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한우를 공급하기 위한 농협의 구상은 무엇인가.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프로필

- 광주교
- 경기도
- 건국대 대학원 석사
- 농협유류 전문
-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장
- 농협사료 감사위원장
- 농협중앙회 상무 (축산판매본부장)

"농협은 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집상과 도축장 등으로 조개져 있던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 산지 수집에서 도축, 가공, 도매까지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 70-80여개의 도축장을 30여개로 통합하기 위해 폐쇄한 도축장 수만큼 신설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듯 축산물 유통 단계와 비용을 줄이게 되면 오는 2020년까지 한우 두당 유통비용을 102만7000원(현행 대비 -19.2%) 줄여 농가 수익을 15만9000원(2.5%) 늘리고 소비자 판매가격은 86만8000원(-7.4%)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e-고기장터'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한 한우도매 판매를 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기대효과는.

"작년 10월 축산분야 유통혁신을 위한 IT 융합형 판매경로 개발계획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과 TV 홈쇼핑이 결합한 신개념 축산물 판매 채널, 'e-고기장터'에 대한 시범운영을 마치고 지난달 2일 공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식당이나 정육점 등 대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기존 오프라인 거래에서의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줄여 축산물 유통가격을 낮추고 판로를 넓혀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 대해서는 '농협마켓(www.nhamarket)'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리/전민정·사진/장세영 기자 puri21@

Good Better Best IT그룹
더존 DUZON

산업군별 대표기업도 다양한 강소기업도

ERP는 역시, 더존 ERP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안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업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기업용 움직이는 푸른심장
Blue Heart 더존

www.duzon.co.kr |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지우고 싶은’ 나, ‘알아야 하는’ 남... 무엇이 우선일까

인터넷 속 ‘잊혀질 권리’ 논란

“50만원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했던 흔적을 모두 지워 드립니다.” 온라인상에 표출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삭제하는 일명 ‘디지털 장례식’의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와 모든 사실이 날날이 노출돼 있는 현실에서 잊고 싶은 과거나 좋지 않은 추억 거리를 온라인에서 지우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갈망이다. 인터넷에 이름 석 자를 치면 수천건이 훨씬 넘는 뉴스와 정보들이 쏟아지는 유명인은 물론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유럽에서 나온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인정 판결이 국내에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정보기술 발달 검색엔진 고도화
개인정보 동시 다발적 확산
국내에서도 입법 찬반논쟁

대학생 설문 결과 81%가 “찬성”
인터넷 사용인구 젊은층 몰리며
개인정보 노출 민감한 반응 보여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정보 삭제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 = 인터넷 공간에 자신도 모르게 퍼져 있는 ‘나’에 대한 정보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을 말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검색엔진의 고도화로 의도하지 않았던 개인정보들이 저장되고 검색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심지어 한 번 생성된 개인정보는 퍼나르기 기능으로 인해 동시 다발적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란도 강하게 일고 있다. 시간이 너무 흘렀거나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와 이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고질적 문제이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해 시대에 역행한다는 평가로 잊혀지고 있는 셈이다.

찬성 입장의 경우, 특히 대학생 대부분이 ‘잊혀질 권리’ 입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진행된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의 대학생들이 잊혀질 권리 입법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이 젊은층에 몰려 있는 만큼 개인정보 노출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에게 의해 이용되는 등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흉악범죄자 또는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관련 내용과 기사 삭제를 요청하거나, 대

통령을 비롯한 국가 기관 또는 정치인이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모두 침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지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도 적용 움직임... 앞으로 방향은 =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법제화를 위한 논의 목적으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서 적용하고 법제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 합의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우선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황성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도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이용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잊혀질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도입 이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잊혀질 권리 도입을 적극 권장하는 전문가들 역시 논란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삭제·처리정지권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의 근거 조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이 권리의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L타워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 패널들은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법제화를 위한 토론을 벌였다. 사진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상 개인정보 지우고 싶다면...

- ✓ 포털 측에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제44조 ‘임시조치’ 요청
- ✓ 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가입 사이트 탈퇴
- ✓ ‘구글 알리미’ 서비스 이용 신상정보 실시간 확인 방법도

온라인에서의 ‘잊혀질 권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일부에선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를 지우는 방법은 의외로 많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의 경우 이미 잊혀질 권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2의 ‘임시조치’가 그 근거다. 이 법률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은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으면 한 달 동안 해당 글을 온라인에서 가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대부분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가 글을 삭제한다.

본인이 게시한 글이 아닐 경우 제3자를 통해 지우는 방법이 있다. 이른바 ‘온라인 장의 사업’이라 불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입된 사이트들을 검색해 더는 이용하지 않

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사이트를 일괄 탈퇴하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꼽힌다.

네이버·다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KISO는 지난 2월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지역·장애·인종·출신 국가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하는 게시물의 유통에 대해 당사자가 신고할 경우 삭제해 주기로 했다. 즉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 표현 방식으로 특정 집단에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직접 포털에 문의할 수도 있다. 구글 검색 시 가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카페나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정보들이 구글을 통해 검색되는 사례다. 이럴 경우 구글 계정에 로그인한 후 △새로

운 삭제 요청 작성하기 △삭제할 URL 입력 순으로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

물론 예방책도 있다. ‘구글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정기적으로 자신의 이메일로 받아 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삭제 요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삶의 마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흔적을 지워 주기 위한 디지털 상조서비스도 국내에 등장했다.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는 생존 당시 자신이 작성한 악성 댓글이나 동영상 등 인터넷 과거를 청산해주는 디지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글을 지우고 탈퇴한 뒤 혹시라도 남은 ‘찌꺼기’는 자체 개발한 검색 프로그램으로 찾아 삭제해 준다.

김범근 기자 nova@

‘잊혀질 권리’ 유럽 뛰는데 한국은...

EU ‘골살레스 사건’ 판결로 구글·MS 등 인프라 확보 쟁점음 국내선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요청 처리 법안 국회에 계류 중

온라인에 게시된 오래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지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고 있다.

지난달 13일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골살레스 사건’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스페인 변호사 골살레스가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다 시작했다. 그는 검색 결과에서 우연히 자신이 지난 1998년 빚 때문에 집을 강제 경매당한 기사를 보게 됐고, 이를 구글에 삭제 요청했지만 구글은 거절한다. 결국 골살레스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승리하면서 그간 이른바 논란만 있었던 잊혀질 권리가 수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IT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춰야 하고, 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검색 결과를 삭제할 수 있게 됐고, 일반인들의 이런 요구도 늘고 있다.

영국의 한 정치인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기사 검색 결과를 삭제해 줄 것을 구글에 요구했고, 성폭력과 관련된 한 남성 역시 검색 정보에서 자신에 대한 내용

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빠르다. 기업들 역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검색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검색 사이트 ‘빙’에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또 검색 서비스가 아닌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잊혀질 권리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야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잊혀질 권리에 반대하는 시각도 많다. 영국 총리실은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ECJ 판결로 사실에 기초한 인터넷 정보까지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유럽에서의 빠른 움직임과 달리 국내는 아직 잊혀질 권리에 대해 걸음마 단계다. 이미 포털에서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데다, 법적 판결이나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한편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사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태현 기자 119@

SALE

잔디로 수제 골프화의 편안한 감동!

내 발이 편안하다!

수제화의 명가 잔디로 - JANDIRO

- ※ 순수 국내 브랜드, 100% 국내 생산
- ※ 방수 및 내구성이 좋은 영국수입 피타드 천연가죽
- ※ 기능성 인솔 및 세균, 냄새 억제 기능이 우수
- ※ 우리 체형의 라스트 사용으로 편안한 착화감
- ※ 장인이 한땀 한땀 제작하는 수제화



외피: 천연소가죽 인솔: 4겹의 향균, 향취, 천연가죽
 아웃솔: 고무창 스파이크 교체형 사이즈: 250mm~280mm



JM2107-13 / 가격: ₩180,000원 →

할인특가 **₩98,000원**

생산기간: 주문 ▶ 생산 ▶ 배송(7~10일 소요)

잔디로 수제화 / 100% 국내생산 / A/S 및 교환, 환불 보장



JM2909-01 / 가격: ₩210,000원 → ₩147,000원

발이 시원한 여름용 천연가죽 메쉬 레저화! / 사이즈 245~285mm

생산기간: 주문 ▶ 생산 ▶ 배송(7~10일 소요)



JM9003-22 / 가격: ₩152,000원 → ₩68,000원

스크린골프, 골프연습, 일상에서 편안하게 착용! / 사이즈 245~285mm

생산기간: 주문 ▶ 생산 ▶ 배송(7~10일 소요)



SM2434, SU2435 / 가격: ₩123,000원 → ₩78,000원

트레킹, 트레일 워킹 등 2014 포레스트 트레킹화! / 사이즈 230~280mm



SW2433, SM2432 / 가격: ₩110,000원 → ₩68,000원

트레킹, 트레일 워킹 등 2014 포레스트 트레킹화! / 사이즈 230~280mm

www.jandiro.com

문의 02)6909-8834 목동점 02)2608-7400 전주점 063)276-5000
 소비자상담실 02)542-2000 / 농협 317-2690-9000-31 (주)잔디로

JANDIRO
SPORTS

중서 화장발 받은 '에이블씨엔씨' '에이씨티'

베스트&워스트 6월 16~20일

6월 셋째주(16~20일) 코스피는 주 후반 외국인인 매도 공세에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하며 방어했지만 1960선까지 밀렸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말 대비 22.78P(1.14%) 하락한 1968.07로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172억원과 794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81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전주말 대비 0.35P(0.07%) 상승한 536.69로 마감했다. 지난주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717억원과 17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718억원 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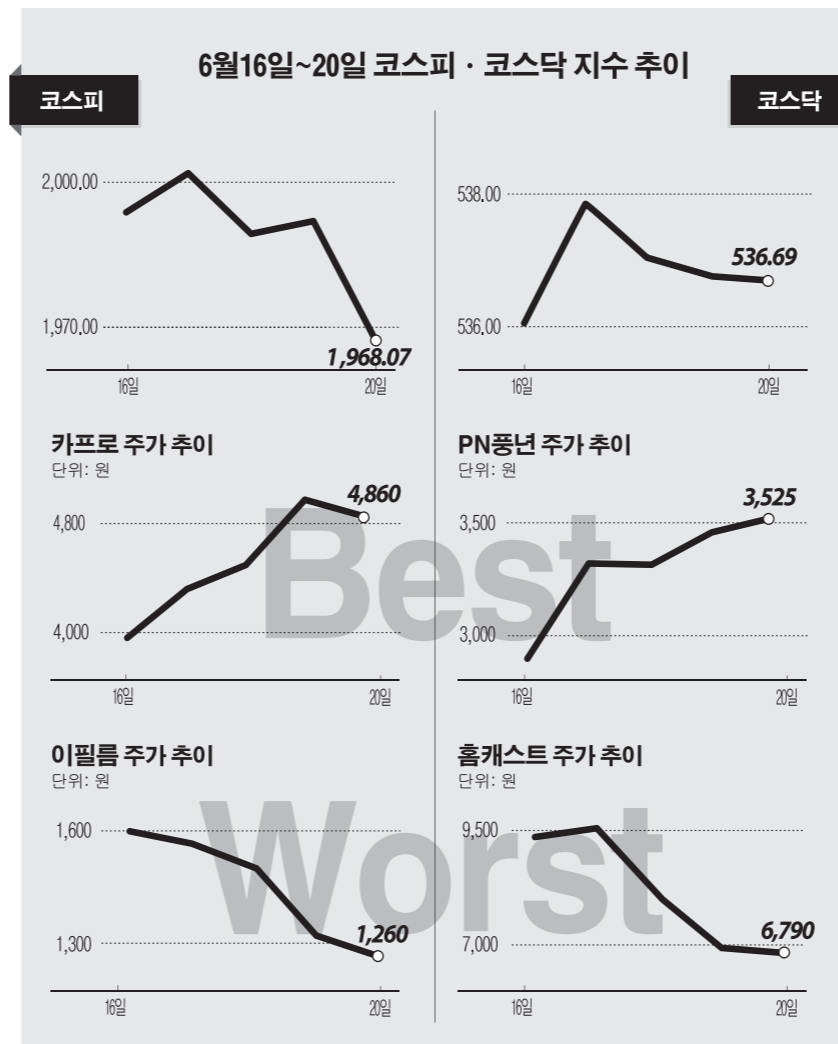
◇카프로, 특별한 호재없이 급등... 에이블씨엔씨, 중국발 훈풍에 활짝 = 23일 예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카프로의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카프로는 22.57% 상승, 주가는 3965원에서 4860원으로 올랐다. 카프로는 지난 16일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특별한 호재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개인은 지난 20일을 제외하고는 4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지난 16일을 제외하곤 순매수 행렬을 이어갔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돌렸다. 주가 상승률 2위를 기록한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한주간 15.04% 상승했다. 중국 내 한국 화장품 판매 호조 소식에 지난 19

속에 22% 하락 =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은 이필름이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하락률은 21.98%로 이 기간 주가는 1615원에서 1260원으로 떨어졌다. 이필름은 지난주 특별한 악재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수급에서 공방을 펼쳤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이 순매도에 나서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이 이 물량을 떠안으며 방어에 나섰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주가 하락률 2위를 기록한 삼화전기(-13.97%)도 이필름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 속에 지난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어 LG생활건강은 주가 하락률 3위를 기록하며 지난주에 11.71% 하락했다. 그

화장품주 강세에도 'LG생활건강'은 11% 떨어져
'이필름' 3거래일 연속 개인 매물폭탄에 21% 급락
'카프로'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에 22% 상승

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상승세에 대해 업계에선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코스맥스·아모레퍼시픽 등 주가가 강세를 보이자 그동안 소외됐던 에이블씨엔씨에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주가 상승률 3위를 기록한 한진해운홀딩스는 인적분할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20일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인적분할로 일부 사업부를 한진해운으로 떼어내면서 지난달 29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후 이날 거래를 개시했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싸이버로 지텍·HJLK 등을 보유한 기존법인과 상표권과 한진해운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 이후 신설법인은 한진해운과 합병했다. 이를 통해 한진해운홀딩스는 손실 사업부 부담을 덜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이어 화승인더는 14.66% 상승을 기록, 주가 상승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필름, 개인 vs 외국인 수급 공방

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LG생활건강은 중국 내 한국 화장품 판매 호조 소식에 지난 19일에만 상승장으로 마감했다. 수급 측면에선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인 순매도에 나섰고, 개인은 순매수 행렬을 이어갔다. 이어 나라케이아이씨는 주가 하락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한 악재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주에만 11.67% 하락했다. 사조씨푸드(-10.86%)와 사조해표(-10.16%) 등 사조그룹주가 주가 하락률 5위와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조해표의 경우 이인우 대표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보유 지분 전량인 10만3625주(지분율 1.45%)를 장내 매도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밖에 한국공항(-9.84%), 동국제강(-9.59%), KC그린홀딩스(-9.46%), 조광페인트(-9.45%) 등도 10% 조금 못미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호 기자 kangih@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카프로	194	3,965	4,860	22.57
에이블씨엔씨	278	18,950	21,800	15.04
한진해운홀딩스	118	7,900	9,080	14.94
화승인더	74	1,160	1,330	14.66
일진머티리얼즈	431	9,650	11,000	13.99
두산건설	861	13,700	15,600	13.87
삼양통상	139	40,950	46,300	13.06
이연제약	316	21,750	24,500	12.64
조광페인트	590	78,900	88,800	12.55
코스맥스퍼타이머	235	45,500	51,100	12.31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조광페인트	127	11,000	9,960	-9.45
KC그린홀딩스	144	7,080	6,410	-9.46
동국제강	628	7,820	7,070	-9.59
한국공항	73	25,400	22,900	-9.84
사조해표	79	12,300	11,050	-10.16
사조씨푸드	96	6,260	5,580	-10.86
나라케이아이씨	20	2,185	1,930	-11.67
LG생활건강	6,653	482,500	426,000	-11.71
삼화전기	44	7,800	6,710	-13.97
이필름	33	1,615	1,260	-21.98

※자료 : 예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PN펀년	35	2,520	3,525	39.88
동화기업	313	15,200	20,350	33.88
다산네트웍스	135	5,900	7,290	23.56
에이씨티	86	11,750	14,350	22.13
에듀컴퍼니	31	1,085	1,330	21.46
넥스틴	38	5,490	6,500	18.40
선데이토즈	500	13,100	15,500	18.32
로만손	193	9,900	11,700	18.18
산성엘앤에스	152	7,210	8,480	17.61
KCI	139	10,800	12,650	17.13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큐브스	33	2,795	2,455	-12.16
오르비텍	24	3,350	2,935	-12.39
솔루메타	134	28,000	24,350	-13.04
초록엠	41	1,840	1,585	-13.86
우진엔터	123	5,010	4,290	-14.37
네오아레나	70	1,900	1,585	-16.58
한빛소프트	74	3,945	3,220	-18.38
데코네이션	42	1,450	1,130	-22.07
전파기지국	59	15,150	11,200	-26.07
홈캐스트	164	9,300	6,790	-26.99

※자료 : 예프앤가이드

◇PN펀년, 쿠쿠전자 상장 소식에 재평가 기대감!... 52주 신고가 경신 = 23일 예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코스닥 시장에서 PN펀년의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PN펀년은 30.88% 상승, 주가는 2520원에서 3525원으로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16일과 17일에는 2거래일 연속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주가는 3000원대를 돌파했다. PN펀년이 쿠쿠전자 상장 소식에 경쟁사들의 기업 가치도 재평가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쿠쿠전자 증시에 노크한 이후 테마주 형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가 상승률 2위를 기록한 동화기업은 지난 한주간 33.88% 상승했다. 동화기업은 지난주 내내 상승세를 연출한 가운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홈캐스트, 주가조작설 전해지자 2거래일 연속 하한가 기록 =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은 홈캐스트였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하락률은 26.99%로 이 기간 주가는 9300원에서 6790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18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권 범죄합동수사단이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주가조작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홈캐스트 주가는 2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주가 하락률 2위를 기록한 전파기지국(-26.07%)은 경영진 횡령설이 제기되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지난 19일 전파기지국에 경영진의 횡령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 및 구

'PN펀년' 경쟁사 상장 재평가 기대감 39% 쯤중
주가조작 '홈캐스트' 횡령 '전파기지국' 하락 1·2위
전주에 재미본 '데코네이션' '한빛소프트' 제자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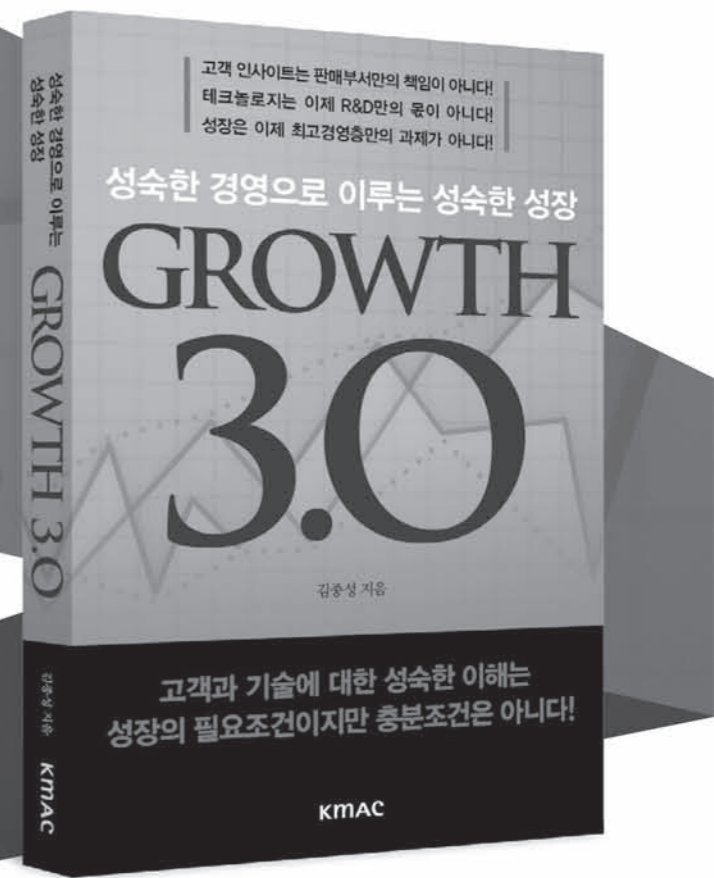
지난 18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장중 한때 6% 넘게 상승, 2만50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주가 상승률 3위를 기록한 다산네트웍스(23.56%)는 통신기기 부품업체로 통신사 광대역 LTE-A 서비스 개시에 따른 관련주로 묶이면서 지난 18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1조원대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장중 한때 7490원을 터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어 에이씨티는 22.13% 상승을 기록, 주가 상승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의 성장 기대감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에이씨티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어 에듀컴퍼니(21.46%)도 20% 넘게 상승했고, 이밖에 넥스틴(18.40%), 선데이토즈(18.32%), 로만손(18.18%), 산성엘앤에스(17.61%), KCI(17.13%) 등도 15% 넘게

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같은날 전파기지국은 경영진의 횡령 관련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8일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그룹주인 데코네이션은 주가 하락률 3위를 기록하며 지난주에만 22.07% 하락했다. 이랜드그룹이 중국 완다그룹과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6월 둘째주 큰 폭으로 급등한 데코네이션은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주가 하락률 4위에 이름을 올린 한빛소프트는 최근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모바일 축구게임 'FC메니저 모바일 2014'를 해외 시장에 선보이면서 게임 흥행 기대감에 지난 13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다음 거래일인 지난 16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이어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8.38% 하락률을 기록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 혁신력**: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 예측력**: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 활용력**: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 적응력**: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 '연봉킹'... 롯데그룹은 '박봉킹'

10대그룹 상장사 평균연봉

상장사 74곳 1인당 평균 6200만원
현대차 7800만원·롯데 4300만원

국내 10대그룹 중 상장사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급여를 주는 곳은 현대차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74곳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은 43조 64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6200만원의 1인당 급여를 지급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의 5개사가 10위권 내에 올랐고 SK그룹이 2개사, 현대차그룹이 3개사를 상위 10위에 올랐다. 상위 10개사의 평균 연봉은 8900만원에 달했다. LG그룹, 포스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롯데그룹은 상위권에 1개사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상장사들이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봉이 7800만원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장사 7곳 모두 조사대상 상장사 평균 연봉(6200만원)을 웃돌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중 가장 연봉이 많은 곳은 현대차와 기아차로 평균 9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제철(8100만원), 현대위아(7100만원), 현대하이스코(6700만원)이 뒤를 이었으며 현대글로벌이 6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삼성그룹은 평균연봉은 7300만원으로 2위

10대그룹 상장사 연봉 BEST 10

단위: 백만원, 지주사, 금융사 제외

그룹명	기업	연간 급여총액	1인당 평균급여액
SK	SK텔레콤	471,438	105
삼성	삼성전자	9,575,079	102
현대차	현대자동차	5,968,093	94
현대차	기아자동차	3,175,596	94
삼성	삼성물산	755,303	87
삼성	제일기획	103,779	84
삼성	삼성정밀화학	91,929	84
SK	SK가스	23,846	82
현대차	현대제철	865,877	81
삼성	삼성엔지니어링	575,517	81

10대그룹 상장사 연봉 WORST 10

단위: 백만원, 지주사, 금융사 제외

그룹명	기업	연간 급여총액	1인당 평균급여액
SK	SKC솔믹스	14,226	32
롯데	롯데하이마트	128,919	33
롯데	롯데쇼핑	821,906	34
GS	GS리테일	155,932	36
GS	삼양통상	8,958	36
한화	한화타입월드	12,911	39
한진	한진칼	270	39
SK	유비케어	8,217	39
한진	한국공항	123,208	40
롯데	롯데푸드	81,254	40



를 차지했다. 에스원(5700만원), 크레듀(4400만원), 호탈신라(4300만원)를 제외한 10개 상장사가 80곳의 평균연봉인 62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삼성전자가 1억2000만원을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해 SK텔레콤에 이어 직원 연봉 2위를 기록했으며 삼성물산(8700만원), 삼성정밀화학(8400만원), 제일기획(8400만원), 삼성엔지니어링(8100만원)이 평균을 훌쩍 상회하는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가장 연봉이 가장 짠 그룹은 롯데그룹이었다. 롯데그룹의 지난해 평균 4300만원의 지급했다. 롯데그룹 중 상장사 평균연봉(6200만원)을 웃도는 곳은 롯데케미칼 한 곳이었다. 롯데케미칼의 평균 연봉은 6700만원이었다. 이어 롯데칠성음료(4600만원), 현대정보기술(4500만원), 롯데

제과(4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평균 연봉 3300만원인 롯데하이마트가 롯데그룹 중 가장 낮았다.

같은 그룹 상장사들을 비교해 가장 연봉 격차가 큰 그룹은 SK그룹이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직원 1인당 1억 5000만원을 지급해 조사대상 상장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했지만 연봉 꼴찌도 SK그룹에서 나왔다. SKC솔믹스는 3200만원을 지난해 지급. 그룹내 연봉 격차가 7300만원에 달했다. 연봉격차가 가장 적은 그룹은 현대중공업(7200만원)과 가장 낮은 연봉을 준 현대중합상사(6000만원)의 격차는 1200만원에 불과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증시 레이다

글로벌 경기지표 개선...경기민감株 주목

이번 주(6월23일~27일) 국내 증시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지표 개선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지난주 증시를 끌어내렸던 외국인 매수 강도 약화와 기업들의 2분기 실적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걸림돌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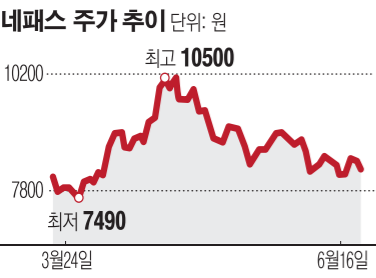
우선 23일 발표될 중국 6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30일 중 발표 예정인 중국 경기선행지수 역시 4개월 연속 반등할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과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구조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 사이클이 시작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오테드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기준을 인화 결정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제조업 PMI 개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의 HSBC 제조업 PMI는 6개월 만에 기준(50)을 상회해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1분기 GDP 확정치, 5월 기준 및 신규주택매매, 5월 내구재주문,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출몰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중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5월 신규 주택매매와 5월 기준주택매매도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 연구원은 "특히 개인소비지출(PCI) 물가는 안정되고 완만한 상승기조를 확인시켜줘 조기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감을 추가로 낮춰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반도체 부품기업 '네페스' 대만업체 DDI 공급 논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기업 네페스의 글로벌 빅5 대만 업체 납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네페스 관계자는 23일 "DDI 분야 글로벌 '빅5' 대만 업체에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제품을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네페스는 글로벌 빅5인 대만 업체 한 곳에 올 초부터 DDI를 대량 공급하고 있다. 품질력을 인정받은 만큼, 추가 대만 업체의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DDI 글로벌 빅5 중 두 군데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셈이다.

DDI는 TV와 모니터, 휴대폰 등 크고 작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영상 데이터를 받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하는 비메모리반도체 부품이다. 네페스는 대만 회사가 개발한 DDI를 받아 범퍼·패키징 등 후공정 작업을 한 후 완제품을 다시 이 업체에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DDI는 네페스 전체 매출액 가운데 40% 수준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군이다.

네페스는 해외 업체로 고객 다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국내 유수의 반도체 업체와 DDI 등 비메모리 반도체의 국산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네페스 관계자는 "지금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많은 국산화를 이뤘지만, 최근 이 비중을 더욱 늘리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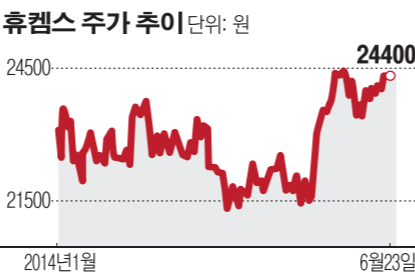
휴켄스, 태광파워홀딩스 해외수주 수혜주 부상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최대주주 지분가치 부각

태광실업의 자회사 태광파워홀딩스가 베트남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휴켄스가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광파워홀딩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민간개발업체인 아크와(ACWA)파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남딘시에 12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남딘 프로젝트 1단계에 돌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태광파워홀딩스는 지난 2010년 베



트남 당국과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한국동서발전과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 베트남 발전소 투자에 공동으로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한국동서발전과의 계약이 파기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바 있다. 남딘 프로젝트는 약 5조원(50억달러)이

상을 투입해 총 24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짓는 베트남 최대의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다. 1단계(1200MW) 화력발전소는 오는 2016년 상업운영에 돌입할 계획이고 2단계(1200MW)는 오는 2020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태광파워홀딩스의 수주로 최대주주 휴켄스의 지분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태광파워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휴켄스와 태광실업으로 각각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휴켄스는 지난해 태광파워홀딩스가 당기순손실 39억6300만원을 기록하며 최대주주로서 이점이 없었지만 이번 남딘 프로젝트 돌입으로 안정적인 수익처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유증 축소' 동국제강, 자금마련 비상

모집총액 2100억→1498억... 차입금 상환·신용하락 압박

동국제강이 유증증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자금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지난 20일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주식 최종발행가액이 주당 555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집총액은 당초 계획한 2100억원에서 1498억 5000만원으로 6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동국제강은 지난 4월24일 유증증자 계획을 발표할 당시 신주 발행가를 주당 8020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차 발행가액이 6690원으로 떨어진 뒤 55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동국제강의 주가는 유증 결정 당시 8897원에서 16.8% 하락한 7400원으로 마감했다.

동국제강은 이번 유증을 통해 현재 발행주식총수(6182만4290주)의 43.67%에 해당하는 2700만주를 발행한다.

증자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차입금 상환 압박이 커졌다. 동국제강은 오는 9월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당초 2100억원을 유증증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조달 규모가 600억원 가량 줄어들면서 자금마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선데 달친 격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같은날 한국신용평가는 경기평가를 통해 동국제강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신용등급은 기존 'A' 등급을 유지했다. 한신평은 과점적 시장지위에 불구하고 장기화된 전방산업 침체, 수익성 부진과 차입금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경기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길호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사업성 회복이 불투명한 점, 재무안정성 개선이 불확실한 점을 주로 감안한 것"이라며 "적자구조가 해소되지 않아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압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승에 기자 sysy@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워렌버핏처럼 가치주를 담아라!



구분	종목명	종목코드	현재가	전일가	평가순차	수익률	대용량
주요종목	SK	003550	34,000	23,910	23,910	23.87	1
	현대차	005380	147,000	117,700	117,700	24.84	2
	삼성	005490	63,600	50,770	63,600	25.28	3
	SK	003570	4,800	3,800	4,800	25.19	4
	한진칼	003490	26,800	20,360	26,800	25.95	5
	한진칼	003490	8,600	7,540	8,600	27.69	6
	한화	003570	19,000	15,000	19,000	26.66	7
	한진칼	003490	3,600	2,760	3,600	30.42	8
	유니온	003710	9,900	7,100	9,900	31.51	9
	한진칼	003490	3,600	2,760	3,600	30.42	10

주식투자 시크릿 읽고 4억이 10억 되었습니다!!

부자아빠의 주식특강 및 추천주 무료로 받기



매주 수, 일요일 밤 7시 반 무료 방송진행 (스마트폰 시청가능)

www.88tv.co.kr



부자아빠 주식학교

검색



물 샬 틈 없는 '삼광' 밀폐용기 맞수 '깨지지 않는' '락앤락'



삼광글라스 공격마케팅... 적은 판관비로 수익·성장성 우위
락앤락 높은 마진율... 낮은 부채율로 재무안정성 탄탄

국내 CEO들 중 가장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업종은 단연 밀폐용기다. 주인공은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회장과 락앤락의 김준일 회장이다. 최근에는 두 회사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재에 대한 유해성 논란까지 불이 붙은 상황이다.

재무제표 상황에서도 두 회사는 용호상박이다. 우선 삼광글라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워 최근 3년간 수익성과 성장성 지표에서 비교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락앤락은 재무 안정성 지표에서 삼광글라스를 압도하고 있다.

삼광글라스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7.3%, 2012년 1.6%, 2013년 1.0% 등으로 매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락앤락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5.9%와 -20.3%로 역성장장을 하다가 지난해 9.4%로 돌아왔다. 하지만 2013년 매출은 1800억원대로 2000억원을 훌쩍 넘은 지난 2011년 실적을 크게 밑돌고 있다.

수익성 지표인 마진율(매출액총이익율)과 영업이익률에서는 서로에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락앤락은 높은 마진율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지만 경쟁업체보다 판매수수료 부담

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락앤락의 연간 마진율은 35% 이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삼광글라스는 12~15% 수준으로 락앤락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에서는 삼광글라스가 앞선다. 삼광글라스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2011년 4.5%, 2012년 4.1%, 2013년 5.2%를 기록했다. 락앤락은 2011년 5.0%에서 이듬해 -0.5%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2.2%로 다시 올라섰지만 삼광글라스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상태다. 이는 락앤락의 판관비 중 판매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락앤락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은 34%다. 특히 판관비 중 판매수수료가 125억원에 이르는 등 20%가 넘고 있다.

삼광글라스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은 10% 수준이다. 판관비 내역에서도 뚜렷하게 부담에 되는 계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락앤락의 판매수수료가 삼광글라스보다 회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재무안정성에서는 락앤락이 삼광글라스를 압도

Glasslock 삼광글라스 주요 지표 단위: %

재무비율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7.3	1.6	1
영업이익증가율	14.2	17.8	1.3
수익성			
마진율	12.2	12.5	13.5
영업이익률	4.5	4.1	5.2
안정성			
부채비율	143	162.3	177
유동비율	105.3	62.7	104.6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

LOCK 락앤락 주요 지표 단위: %

재무비율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5.9	-20.3	9.4
영업이익증가율	45.3	3	1
수익성			
마진율	39.5	37.8	35.3
영업이익률	5	-0.5	2.2
안정성			
부채비율	19.8	25	26.3
유동비율	312.3	177.1	130.5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

하는 모습이다. 락앤락의 부채비율은 2011년부터 30%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이 지출되는 차입금 의존도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15% 수준에 불과하다. 유동비율은 지난 2011년 312.3%에서 지난해말 130.4%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삼광글라스보다 월등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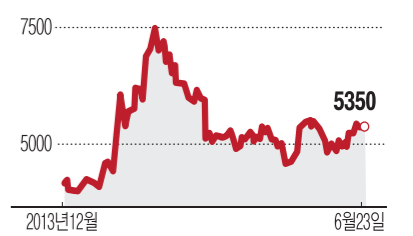
반면 삼광글라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1년 142.8%에서 지난해말 177.0%로 상승한 상태다. 차입금 의존도도 44.4%에서 지난해 53.3%로 증가한 상태

다. 이에 따라 매출액대비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락앤락의 1.9%보다 두배 가량 높다. 유동비율도 지난해말 기준 104%다.

최근 2년간 주가상승율은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락앤락의 주가는 지난 2012년초 3만7000원대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1만2000원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삼광글라스도 2012년 이후 7만원선까지 올랐다가 현재 4만5000원선에서 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KT서브마린 주가 추이 단위: 원



'사업확장' KT서브마린 150억 무인잠수정 산다

KT서브마린이 150억원을 들여 무인수중잠수정 투자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무인수중잠수정을 도입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가격이 자산의 13%에 달하는 만큼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서브마린은 기본 정비 내용 연수 경과에 따른 대체 투자로 무인수중잠수정(ROV)을 154억5956만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총액 대비 13.4%에 해당되며 취득예정일자는 내년 8월31일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을 확장하려면 무인수중잠수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구매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작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부분이고 아직 의사결정만 받은 사항으로 거래업체, 취득금액 등 아직 미확정 사항으로 확정되면 재공시할 것"이라며 "거래 상대방이 정해지면 계약금, 중도금 형태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T서브마린은 국내 유일의 국내와 국제간 해저통신케이블 건설과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KT가 지분을 36.96%로 최대주주로 있다.

이미정 기자 lmj@

코스맥스비티아이, NHN인베 FI로 영입

(재무적투자자)

뉴트리바이오텍 65만주 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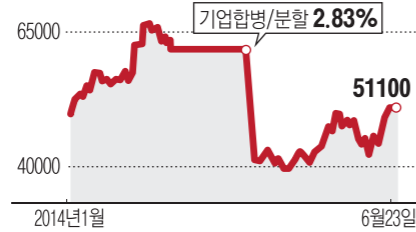
코스맥스의 지주회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BTI)가 뉴트리바이오텍 인수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FI)로 NHN인베스트를 영입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지난 19일 뉴트리바이오텍 주식 65만8729주를 62억5900만원 규모에 NHN인베스트먼트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풋백옵션 계약도 체결했다.

NHN인베스트는 계약종결 3년 이후부터 뉴트리바이오텍 보유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코스맥스비티아이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갖는다. 계약 후 1년 6개월 이후에는 보유주식의 38%(24만7020주) 범위 내에서 코스맥스비티아이가 풋옵션(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코스맥스비티아이가 뉴트리바이오텍 인수 과정에서 NHN인베스트를 FI로 영입한 것은 무엇보다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스맥스비티아이 주가 추이 단위: 원



지난 5월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사업확장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인 뉴트리바이오텍 보통주 192만3705주를 182억7750만원에 양수했다.

당시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자산양수도 결정 보고서를 통해 "뉴트리바이오텍 인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외형성장 과 수익창출이 예상되지만, 제1금융권에서의 일부 자금조달로 인해 향후 부채비율이 35% 가량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6일 코스맥스비티아이는 뉴트리바이오텍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

다. 이후 19일 NHN인베스트 보유중인 뉴트리바이오텍 주식 65만8729주를 62만59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인수 자금의 35% 가량을 FI로부터 조달하게 됐다. 지난 1분기말 기준 코스맥스비티아이의 현금성자산은 144억원 가량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FI 영입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뉴트리바이오텍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 목적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FI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인수 금융의 부담을 줄이고, 운용자금을 좀 더 확보하게 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맥스는 지난 3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투자사업부문을 맡은 존속회사 코스맥스비티아이와 화장품사업부문을 신설회사 코스맥스로 분할했다. 지주회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코스맥스바이오(63%), ㈜생명의나무에프앤비(50%), 코스맥스인터내셔널(100%), 쓰리에플즈코스메틱스(51%) 등 총 5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김미정 기자 mj@

제주반도체 조형섭 대표, 11만주 매입

공시 돌보기

연중 최저점... 주가 방어 목적

제주반도체 조형섭 대표가 지난달말부터 꾸준히 장내에서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달 20일 장중 한때 2980원까지 추락하며 연중 저점을 갈아치운 상황으로 조 대표의 지분 매입으로 인해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4만1224주를 장내 매수했다. 취득 단가는 3060~3128원으로 조 대표의 지분은 기존 1.24%(29만291주)에서 1.41%(33만1515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조 대표(당시 부사장)는 지난해 7월말 각자 대표로 선임된 이후 2달 뒤인 9월말까지 2600주를 장내 매수한 바 있다. 이어 8개월 만에 지분 매입 나서기 시작, 조 대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6만6777주를 장내 취득하

제주반도체 주가 추이 단위: 원



강인호 기자 kangih@

ELLE
TIME & JEWELRY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 G3

Quad HD 디스플레이 | OIS+카메라&레이저 오토 포커스 | 유선형 메탈릭 디자인



The LG G3 could be a game changer

(G3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
-CNET

All hail the new king

(모두 새로운 왕을 맞이하라)
-Phone Arena

The G3's Quad HD display blows away its mainstream competition

(G3 Quad HD 디스플레이는 주요 경쟁의 판도를 뒤엎고 있다)
-The Verge

"G3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 외신들 잇따라 긍정 평가
-경향신문

QHD 첫 탑재... LG G3 화질 자신감
-국민일보

LG G3, 고화질·사용편의성 '눈길'
-내일신문

LG G3 출시, 탑재한 QHD는 뭐? HD의 4배 고해상도
-동아일보

G3 해외반응 벌써 대박... "화면 인상적" 호평
-디지털타임스

LG G3, '활화산 영상' 10일 만에 조회수 '100만건'
-매일경제

LG전자 QHD 스마트폰 'G3' 공개
-머니투데이

LG전자 야심작 'G3', 세계 첫 QHD화면... 국제인증 획득
-문화일보

베일 벗은 LG G3, 깜짝 놀랄 스펙으로 중무장
-서울경제

G3 오토포커스 기능에 QHD 디스플레이 탑재까지
-서울신문

LG, 첨단 무장 'G3'로 휴대전화 명가 재건
-세계일보

LG G3, 스마트폰 외신설문서 1위 달려
-스포츠서울

스펙 눈에 띄기! LG전자 'G3'로 글로벌 빅3 굳히기
-스포츠경향

LG G3 출격... 쿼드HD 화질로 더 생생해졌다
-스포츠동아

G3에 쏟아지는 해외 언론 칭찬 "최고급 경쟁력까지 갖춰"
-스포츠월드

LG G3 출시, 세계 첫 QHD화면에 레이저 오토 포커스까지 '대박'
-스포츠조선

LG G3, 호평+판매 돌풍 '텐밀리언셀러' 시간문제
-아시아경제

'LG G3' 외신 호평 잇따라
-이데일리

LG G3 스펙 중 카메라가 단연 최고
-이투데이

화질 앞세운 LG G3
-일간스포츠

베일벗은 LG 'G3'에 외신 호평 쏟아져
-전자신문

LG폰 부활의 신호음... G3, 빅3 굳힌다
-조선일보

G3 화질의 궁극을 만난다
-중앙일보

As LG seeks answers, it's G3 against the world
-코리아중앙데일리

LG launches G3, aims to solidify top 3
-코리안타임스

LG전자 G3 출시, 럭셔리 스펙 자랑
-코리아헤럴드

외신 "LG G3, 현존하는 최고의 안드로이드 폰"
-파이낸셜뉴스

엘지전자 새 스마트폰 G3 출시... HD의 4배 화질·레이저 자동초점
-한겨레신문

'카메라의 힘' LG G3 초반 돌풍
-한국경제

화질 종결자... '최강 스펙' 담았다
-한국일보

최고 성능·간편 조작... 스마트혁신 'LG G3'
-헤럴드경제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G3